

# 누가 대승(mahāyāna) 경전을 창작하였는가? — 대중부(大衆部) 그리고 방등(方等, *vaitulya*) 경전 —

가라시마 세이시(辛嶋静志)  
(創価大學 國際佛教高等研究所)

역자\_정주희 (금강대)

## 국문요약

본고에서 나는 소위 ‘대승경’의 초기 창작자가 그들의 문헌을 ‘*vevulla* / *vaitulya* / *vaipulya* (Pāli *vedalla*)’로 이름했고, 그런 이후에야 이러한 경명이 대승경전(*mahāyānasūtra*)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논증했다. 초기 한역 뿐만 아니라 중국 불교 경전목록집 역시 조사함으로써, ‘*vevulla*’(2세기)에서 ‘*vaitulya*’(3세기~616년), 그 후에 ‘*vaipulya*’(5세기 이후), 그리고 마침내 ‘*mahāyānasūtra*’(5세기 이후)로의 이행을 논증했다.

불교학리뷰 (Critical Review for Buddhist Studies)

16권 (2014. 12) 9p~96p

나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들의 원형이 ‘\*vedulla’였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vedulla는 *vaitulya* (> *vetulla* > \*vedulla)에 해당하는 중세 인도형으로, ‘같은 종류’가 ‘아닌’(vi), 즉 ‘비정상적인, 특이한’을 의미했을 것이다. 이 ‘\*vedulla (Pāli vedalla)’라는 명칭은 인드라신과 부처님, 혹은 제자들 사이처럼 아랫사람과 윗사람 사이의 반복되는 문답으로 구성된 ‘비정상적인’ 경전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다. 아마도, 새로운 경전을 창작한 자들은 그들이 전통적인 경전에서 발견할 수 없는 내용과 형태를 가진 독특한 문헌을 창작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헌을 ‘필적할데 없는, 비할데 없는’을 의미하는 ‘\*vevulla, *vaitulya*’로 명명했을 것이다.

586년에 편찬된 『대방등대집경』은 ‘*vaitulya*-겸-*mahāyāna*’ 경전들의 모음집처럼 보이는데, 이 모음집에 다양한 불교 학파들을 기술한 구절이 있다. 그들 중 대중부와 관련한 기술은 다른 학파가 부정적으로 기술된 것과 달리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우리는 이 ‘*vaitulya*-경전’의 창작자가 대중부에 속했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부와 『팔천송반야』, 『법화경』, 『삼매왕경』, 『대승대반열반경』, 『십지경』과 같은 경전들의 긴밀한 관계는 이미 지적되었다. 대중부와 파탈리푸트라 대승 사이의 긴밀한 관계 또한 기록되었다. 또한 자신들의 논에서 대승 경전을 인용한 나가르주나, 찬드라키르티, 산티데바, 그리고 아티사는 대중부의 승려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바수반두는 설일체유부의 승려였으며 설일체유부 교리의 개요서인 『아비달마구사론』을 썼으나 이후에 몇몇 대승경의 주석들 역시 저작했다. 이러한 그는 ‘설일체유부로부터 나오’한 자로서 설일체유부의 『아비달마지파』에서 비난되고 있다. 나는 또한 대승경 중 어떠한 것도 인도 설일체유부에 의해 작성된 전체 아비달마 문헌에서 언급된 적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따라서 설일체유부논사들은 처음에는 대승불교에 대립적이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나는 대중부의 누군가가 새로운 경전을 창작했다고 추정한다. 그것들은 종종 문답으로 구성되며, 따라서 불교 교리에 대해 보수적인 사상을 비난하고, 이러한 새롭게 작성된 문헌들을 불교 경전으로서 그것들이 ‘비정상적’이라는 의미에서 그러나 ‘필적할 데 없고, 비할 데 없다’는 의미에서 ‘vedulla / vaitulya’라고 불렀다. 이후에, 그들은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vaipulya’, 즉 ‘완전한 발전, 충만, 풍부함, 가득참’으로 불렀다. 훨씬 이후에, 그들은 대승경전으로도 불려지게 되었다. 이처럼 새로운 경전들을 창작하고, 필사하고, 읽고, 암송하고, 공표한 자들은 그들 스스로를 처음에는 ‘대승’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결국 대중부의 일원들이었고 따라서 대승이라는 이름이 초기 인도 비석들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은 꽤 자연스러웠다. 훨씬 이후에, 대승 경전들과 교의들이 훨씬 더 대중적이 되었을 때, 다른 학파에서도 그들을 인정하고 또한 그들을 흡수했다.

주제어: 방등경, 대승경전, 대중부, 방광, 대방광, 베달라, 바이틀리카

나는 최근 연구들과 나의 지난 연구들을 참고하면서, 소위 대승(*Mahāyāna*)이라고 불리는 불교 경전들의 언어와 전승방식의 변화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 (1) 프라크리트어(*Prakrit*: 간다리어(*Gāndhārī*)를 포함한 구어체)로 구전: 기원전 1세기
- (2) 프라크리트어로 구전/카로스티(*Kharoṣṭhī*) 문자로 프라크리트 문헌 서사: 기원후 1세기에서 3세기
- (3) 프라크리트어와 혼합된 불완전한 산스크리트어: 2세기에서 3세기
- (4) (불교) 산스크리트어: 브라흐미(*Brāhmī*) 문자로 서사: 3세기/4세기 이후

‘대승’이라고 말해지는 불교경전이 산스크리트어로 번역되거나 편찬되고, 브라흐미 문자로 서사된 것은 3세기 또는 4세기 정도로 늦은 시기였다는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단계들을 고려한다면, 초기 대승 경전의 기원과 (발전이 아닌) 변화에 대한 연구에는 다음 세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

- (1) 초기 대승 경전들은 본래 산스크리트어가 아니라 프라크리트어였다.
- (2) 그러한 경전들은 처음에는 구전되었다.
- (3) 대승 경전들은 가끔 변화/변형하였다(발전된 것이 아니다).

만약 누군가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부분 17세기 이후의 현존하는 온전한 산스크리트어 사본들 그리고 이러한 후대 산스크리트 사본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산스크리트어 문헌들이 ‘원전(*original text*)’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며, 훨씬 초기의 한역 또는 중앙아시아로부터의 산스크리트

어(또는 산스크리트어점 프라크리트어 단편들) 문헌들을 ‘개악(corrupted)’이라고 간주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종류의 오해를 분명히 보여주는 예는 ‘Avalokitasvara’와 ‘Avalokiteśvara’이다. ‘Avalokitasvara’라는 이름이 있는 중앙아시아의 오래된 산스크리트 단편들이 적어도 8편이 있고, 키질(Kizil)에도 ‘(Apa)lokidasvara’가 나타나는 또 하나의 단편이 있다. 이러한 오래된 형태들은 ‘소리들을 살펴보는 자’ 그리고 ‘세계의 소리들을 살펴보는 자’(闍音, 現音聲, 光世音, 觀世音)로 번역한 초기 한역들과 일치한다. 반면에 7세기, 『법화경』의 길기트(Gilgit) 사본에서 처음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Avalokiteśvara’는 6세기 이후의 ‘세계를 자재롭게 관찰하는 자’ 그리고 ‘자재롭게 관찰한 사람’(觀世自在, 觀自在)으로 번역한 신(新) 한역과 일치한다. 우리는 오래된 형태들이 새로운 형태들의 ‘개악’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20여 년 전, 나는 축법호(竺法護, Dharmarakṣa) 역 『법화경』(286년 역)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문헌이 프라크리트어-점-산스크리트어(Prakritcum-Sanskrit)로 전승되었음을 증명하였다. 이는 법화경의 한역과 이용 가능한 모든 산스크리트 사본들을 포함한 다른 버전들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졌다(Karashima, 1992). 나는 초기 대승 경전들의 대다수가 본래는 프라크리트어(중세 인도어의 일종)로 전승되었거나 또는 산스크리트어 요소들과 혼합된 프라크리트어로 전승되었고, 후에 점진적으로 (불교) 산스크리트어로 ‘변역되었다’고 추정한다. 이 오랫동안 지켜온 가설은 새롭게 발견된 간다리어 버전의 『팔천송반야』의 단편에 의해 증명되었다(Falk/Karashima 2012, 2013). 이 『팔천송반야』는 탄소 연대 측정법에 기반하여 81.1%의 가능성으로 47-1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산스크리트어 형태의 불교 문헌들조차, 여러 세기 동안의 지속적인 산스크리트어화, 잘못된 역성어, 축소, 추가, 삽입의 결과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대

승 경전의 원형에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또는 그 전승을 추적하기 위해 초기 대승 경전을 적절히 이해하려고 시도할 때, 만약 대부분 11세기 이후로 거슬러 올라가는 현존하는 산스크리트 사본에만 우리 자신들을 한정한다면, 그러한 연구들의 해석적 가치는 오히려 제한적일 것이다. 따라서 산스크리트 문헌들 이외에도, 역사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이용 가능한 모든 다른 자료들을 조사해야만 한다. 특히 2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번역된, 따라서 현존하는 산스크리트 사본들 대부분에 선행하는 한역은 필수적인 자료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번역의 정확한 시기가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상을 모두 실행함으로써, 우리는 초기 대승 경전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상식의 ‘안경’을 제거하고 1차 자료들을 새롭게 봄으로써 상식의 ‘안경’을 통해 우리가 이해했던 것을 재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초기 대승 경전들의 원형들에 더욱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상식’의 예들 중 하나가 ‘대승’이라는 단어다. ‘모든 사람이 부처의 지혜(*buddha-jñāna*)를 동등하게 얻을 수 있고 그것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믿음은 소위 대승이라 불리는 경전들 모두가 선포한 것이다. 이것이 대승 불교의 이른바 상식적인 접근법이다. 그러나 『법화경』의 두 번째 층위에서, 『법화경』을 포고(布告)하기 때문에 ‘법사’(*dharmabhāṅaka*)들이 시(*kāvya*, 즉 『법화경』 그 자체)를 편찬했고 이설(異說)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얼마나 가혹하게 비난받았는지 묘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들은 그러한 모욕과 박해와 사원으로부터의 추방을 모두 견뎌내었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부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긴 『법화경』을 굴하지 않고 포고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믿음이 그 당시 불교 권위자들의 눈에는 아주 위험한 이설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이는 모든 사람들의 성불 가능성을 선언하는 『법화경』이 소위 대승 경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 중 하나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만약 그러한 대승 교리가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면, 『법화경』

의 법사들이 그러한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법화경의 두 번째 층위에서 반복적으로 묘사되는 강인한 인내도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나는 ‘부처의 지혜’가 ‘대지혜’(mahājñāna)로도 지칭되었고, 그 ‘mahājñāna’는 『법화경』의 초기 발전단계에서 흔히 ‘mahājāna’로 발음되었다고 추정한다. ‘mahājāna’는 ‘대승’(great vehicle)으로도 이해될 수 있었기 때문에, 후에 그것은 ‘mahāyāna’로 잘못 해석되었다. 그리고 이 해석은 또한 ‘mahāyāna 불교’의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다른 경전들의 편찬자들에게 의해 채택되었다. 아마도 『법화경』의 ‘화택의 비유’에서 발견되는 이중적 의미의 단어 ‘\*jāna’의 사용을 통해, ‘yāna/jñāna’에 대한 말장난이 이러한 오해를 낳았을 것이다.

『팔천송반야』(Aṣṭasāhasrikā Prajñāpāramitā, 이하 AsP로 줄임)에는 ‘mahāyāna’라는 단어가 39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36번이 첫 번째 장에 등장한다. 산스크리트 본에서는, ‘mahāyāna’가 VIII장(AsP 95.13)에서 한번 발견되고 XI장(AsP 116.32, 118.5)에서 두 번 발견되지만, 이러한 세 번의 발견은 2세기에서 7세기 사이의 한역과 상응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 단어들이 훨씬 후대에 삽입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mahāyānika’(대승에 속하는)라는 표현은 XVI장(AsP 159.7,9,11,17)에서 4번 연속적으로 등장한다. 만약 ‘mahāyāna’라는 개념이 AsP에 중요했다면, 이 단어는 그렇게 불규칙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I장은 다른 부분들보다 철학적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서론은 책을 완전히 완성한 뒤에 작성되기 때문에, AsP의 I장은 편찬의 마지막 단계에서 작성되어졌다고 여겨진다.

I장에 있는 다음 에피소드는 대승이라는 개념이 『팔천송반야』(AsP[V] 12.25ff. = AsP[R] 24.18ff. = AsP[W] 108.209ff.)와 이질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대승의 정의에 대한 부처님과 수보리(須菩提, *Subhūti*)사이의 대화를 듣고서, 존자 부루나(富樓那, *Pūrṇa*)가 부처님께 말했다. ‘세존이시여! 반야바라밀에 대해 질문 받은, 저 존자 수보리는 대승이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존자 수보리는 부처님께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반야바라밀과 상관 없이 대승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말하셨다. ‘그렇다, 오, 수보리여! 너는 반야바라밀에 따라 대승을 말했다.’

대승을 반야바라밀과 관련짓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부루나의 비판은, 대승이 반야바라밀 사상과 이질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상식’의 또 다른 예는 ‘대승경’(*mahāyāna-sūtra*)이라는 용어이다. 반야바라밀 문헌들은 보통 『반야바라밀경』(*Prajñāpāramitāsūtra*)으로 현대 작업에서 인용되지만, 내가 아는 바로는, 그 경들은 모든 산스크리트 사본들과 티베트역 본에서 ‘*sūtra*’라는 단어 없이 ‘~*Prajñāpāramitā*’라고 이름 붙여진다. 누군가는, 한역에서는 그것들이 경(經)이라고 이름 붙여졌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상식’의 또 다른 함정이다. 심지어 최근의 히라카와 아키라 교수도 이 함정에 걸렸었다. 그가 대본 『정토경』(*Sukhāvatīvyūha*)의 가장 초기 한역에 나타나는 ‘육도집경(六度集經)’과 ‘도지대경(道智大經)’을 『육바라밀경』(六波羅蜜經, *Six Pāramitā sūtra*)과 『도(道)와 지혜에 관한 대경』(*Mahāsūtra of the Path and Wisdom*)으로 복원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는 이러한 두 ‘경’을 가장 오래된 ‘대승경전’으로 간주한다. 그것들이 2세기에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한역들 중 하나에서 언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기 한역에서 경(經)은 주로 법(*dharma*)을 번역하기 위해 사용되고 또한 때때로 ‘법문(*dharmaparyāya*)’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따라서 ‘반야경(般若經)’, ‘육바라밀경(六波羅蜜經)’, ‘도지대경(道智大經)’의 ‘경(經)’은 ‘경전(*sutra*)’이 아니라 ‘가르침

(teaching)’을 의미한다.

프론스달(Fronsdal 1998: 126)이 지적하기를, 대승 경전들은 ‘sūtra’뿐 아니라 ‘paripṛcchā’, ‘nirdeśa’, ‘samādhi’, ‘vyākaraṇa’, ‘vyūha’라고도 명칭이 붙여졌다고 하였다. 요네자와 요시아스(米澤嘉康)는 『법화경』, 『유마경』(Vimalakīrtinirdeśa-sūtra)과 같이 흔히 ‘sūtra’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경전명의 신빙성을 의심하였다. 그리고 11세기 이후에 작성된 네팔과 티베트의 현존하는 대승 경전 사본들에서 발견된 경명을 조사하였는데, 다양한 종류의 경명이 있다고 하였다.

*dharmaparyāya: Arthaviniścaya-dharmaparyāya, Saddharmapuṇḍarīka*  
*~dharmaparyāya ~, āryaSaṃghāta ~dharmaparyāya ~*

요네자와(2012)가 지적하듯이, 경명이 ‘-법문’(-*dharmaparyāya*)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 경전 자체 내에서도 이 문헌을 수지하고, 읽고, 암송하는 것을 장려하는 문구에서 훨씬 더 자주 나타난다. ‘법문’(*dharmapaliyāya*)이라는 용어는 아쇼카 비문들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경전에 대한 이러한 용어 사용은 매우 오래된 것이다.

- *sūtra*와 결합된 경우: *Daśabalasūtra, Laṅkāvatārasūtra, Ratnaketusūtra* 등.  
 - *sūtrarāja: Suvaraṇaprabhāsottamasūtrendrarājah* 등.

그러나, 단연코 가장 흔한 형태는 ‘~*nāma mahāyānasūtra*’이다.

*Ajitasenavyākaraṇanirdeśa nāma mahāyānasūtra*

*Amoghapāśahṛdaya nāma mahāyānasūtra*

*Maitreyavyākaraṇa nāma mahāyānasūtra*

*Samādhirāja nāma mahāyānasūtra*

*Sukhāvātivvyūha nāma mahāyānasūtra*

*Lalitavistaro nāma mahāyānasūtra ratnarājam* 등.

‘~nāma mahāyānasūtra’이라는 경전명은 티베트 칸주르에서도 흔한 표현이다. ‘비교적 후대의’ 산스크리트 사본들이나, 대략 800년 이후에 만들어진 공인된 티베트역에 기반하여 대승 경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의심도 없이 이러한 경전들이 처음부터 ‘mahāyānasūtra’라고 명명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일단 한역과 한역 불교문헌 목록집들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 양상은 완전히 변한다. 그것들을 조사함으로써, 우리는 ‘vevulla’에서 ‘vaitulya’로, 그리고 ‘vaipulya’로, 최종적으로는 ‘mahāyānasūtra’까지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20년 이상 ‘vaitulya’, ‘vaipulya’ 그리고 ‘mahāyāna’ 사이의 관계를 연구해 왔다. 이것에 대하여 피터 스킬링(Skilling 2013)은 훌륭하고 상세하며, 고무적인 논문을 최근 출간하였다(2013, 12월). 나는 그와 많은 점을 공유하고 있다.

## I. 『寶積經』(*Ratnakūṭasūtra = Kāśyapaparivarta* (迦葉品))

『보적경』(*Ratnakūṭa*)이라고 불리는 오래된 소위 대승 경전이 있다. 그것은 후에 「가섭품」(*Kāśyapaparivarta*)으로 다시 명명되었고, 그때 그것은 『대보적경』(*Mahāratnakūṭa*)의 일부로 간주되었다. 다른 문헌에서 이 문헌은 『*Ratnakūṭa(-dharmaparyāya* 혹은 *-sūtrānta)*』<sup>1)</sup>로 언급되며, 훨씬 후

1) KP § 157 = KP(V-D), pp. 55-56: *Mahāratnakūṭo sūtrāntarā(j)[n]*. ... *ito Ratnakūṭam*

대까지 인도, 티벳, 중국의 주석들에서 『보적경』으로 인용되었다. 산스크리트 사본과 아마도 6-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모두 중앙아시아에서 발견된 단편들을 제외한다면, 한역 4편과 티베트역 1편이 있다. 한역 4편은 179년에 지루가참(支婁迦讖, Lokakṣema, Lk로 줄임)에 의해 한역된 것, 익명의 역경가들에 의해 번역된 진(晉) 왕조 때 한역된 것(265-420년, 5세기 초반 경, Jin으로 줄임)과 진(秦) 왕조 때 한역된 것(351-431년, Qin으로 줄임), 마지막으로 11세기 시작 무렵 시호(施護, Dānapāla, Dp로 줄임)에 의해 한역된 것이 있는데, 이들 모두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단어 하나 하나를 비교함으로써, 이 문헌의 점진적인 변화(나는 ‘발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우리는 다양한 경전명들을 고려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경전명을 반드시 포함했을 것이라 추정되는 산스크리트어 사본이나 단편들의 끝 부분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Lk(179년). 『遺曰(←日)摩尼寶經』<sup>2)</sup> (\**vevulla-Maṇiratna-dharmaparyāya*)

Jin(265-420년). 『摩訶衍寶嚴經』<sup>3)</sup> (\**mahāyāna-Ratnakūṭa-dharmaparyāya*)

---

*sūtrāntarāṅgā-d-ekaṅgāthām*. 또한 이 문헌의 여러 구절들이 *Śikṣāsamuccaya*, *Prasannapadā*, *Bhāvanākrama* 등 다양한 문헌들에서 인용된다. Śikṣ 52.12. *Ratnakūṭe*; Prasp. 45.1, 47.1, 156.1, 248.4, 336.3, 358.10. *ārya-Ratnakūṭasūtra*; Bhk(III) 20.11, 21.13, 27.13. *āryaRatnakūṭe*. 바로 이 문헌을 포함하여 몇몇 Mahāyāna 경전들을 모으고, *Ratnakūṭa*라는 이름이 이 모음집의 제명으로서 사용되기 시작할 때, 이 특별한 경전의 제명은 *Kāśyapa-parivarta*(「가섭품」)라고 언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경전은 독자적인 경전으로서 *Ratnakūṭa*라고 지속적으로 불려졌으며, 따라서 그 명칭은 *Ratnakūṭa*로서 후대의 문헌들에 인용되었다.

2) 194a19. Cf. KP § 166. 도안의 목록서에 의하면, 승우(445-518)의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 (T. 55, no. 2145, 6b17; 510-518년)에서 지루가참의 번역은 『보적경』에도 인용되고, 『마니보경』(摩尼寶經)에도 인용되었다. 승우시대에 존재하지 않는 460경전 중의 하나로서 『출삼장기집』(29c17)에서 경명 佛<說>遺曰(←日)摩尼寶經으로 나타난다.

3) T. 12, no. 351, 200c09.

Qin(351-431년). 『大寶積經·普明菩薩會』(\**Mahāratnakūṭasūtra*에 있는 \**Samantāloka*<sup>4)</sup>-*bodhisatva-parivarta*)<sup>5)</sup>

Dp(施護, ?-1017년). 『大迦葉問大寶積正法經』<sup>6)</sup>(\**Mahākāśyapaparipṛcchā-Mahāratnakūṭa-dharmaparyāya*)

Tib. (9세기) '*phags pa dKon mchog brtsegs pa chen po'i chos kyi rnam grangs le'u stong phrag brgya pa las 'phags pa 'Od srung gi le'u zhes bya ste* (\**āryaMahāratnakūṭadharmaparyāyaśatasāhasrikagranthe āryaKāśyapaparivarta nāma*)<sup>7)</sup>

위에서 언급했듯이, 경전의 명칭은 그 경전 내에서 몇 차례 언급된다.

KP § 52 = KP(V-D), p. 23. (iha) *Mahāratnakūṭe dharmaparyāye*, Lk. 『極大珍寶之積遺曰(←日)羅經』<sup>8)</sup> (\**Mahāratnakūṭa vevulla-dharmaparyāya*), Jin. 『寶嚴經』, Qin. 『寶積經』, Dp. 『大寶積正法』

KP § 150 = KP(V-D) 53. (iha) *Mahāratnakūṭe dharmaparyāye*, Lk. -, Jin. -, Qin. 『寶積經』, Dp. 『大寶積正法』

KP § 160 = KP(V-D) 57. (ayaṃ) *Ratnakūṭo dharmaparyāyo*, Lk. -, Jin. 『寶嚴經』, Qin. -, Dp. 『大寶積經典』

KP § 157 = KP(V-D) 55-56: *Mahāratnakūṭo sūtrāntarā(j)[ñ]. ... (ito) Ratnakūṭaṃ sūtrāntarājñā-d-ekagāthāṃ*, Lk. -, Jin. 『寶嚴經』, 『...寶嚴經』, Qin. -, Dp. 『大寶積經典』, 『...大寶積經典』

4) Cf. KP, p. xxiii, n. 27.

5) T.11.631c-15f.

6) T. 12, no. 352, 216c29

7) Tib(Pk) No. 760 (No. 43).

8) 190c14f.

『지광명장엄경』(*Sarvabuddhaviṣayāvātārajñānālokālaṅkāra*)에서 이 경전의 제목은 다음과 같이 인용되었다.

『大方廣寶積法門』(\**mahāvaiṣṭulya-Ratnakūṭa-dharmaparyāya*), 담마류지(Dharmaruci, 曇摩流支) 역, 501년, T.12, no. 357, 239a23.

『無比寶頂修多羅』(\**vaiṣṭulya-Ratnakūṭa-sūtra*), 승가바라(僧伽婆羅, Saṅghapāla 혹은 Saṅghavarman, fl. 506-520년) 역, T.12, no. 358, 250a29f.

*shin tu rgyas pa'i sde dKon mchog brtsegs pa'i mdo* (\**vaiṣṭulya-Ratnakūṭa-sūtra*) 수렌드라보디(Surendrabodhi)와 예셰데(Ye shes sde) 티베트역, 800년 경: Tib(Pk), no. 768, mdo sna tshogs, khu 302a6 (vol. 28, p. 123); Tib(D), no. 100, mDo sde, ga 276a6

『寶積方廣正法』(*Ratnakūṭa-vaiṣṭulya-dharmaparyāya*) 범호(法護, Dharmarakṣa or Dharmapāla, fl. 1004-1058년) 한역, T.12, no. 359, 254a8f.

Ratnakūṭavaiṣṭulyasūtra 12 혹은 13세기에 필사된 산스크리트 사본: JĀA 4.4<sup>9)</sup>

지루가참의 한역에서, 遺曰(←日)羅<sup>10)</sup> (EH. *źjwæi [wi]<sup>11)</sup>vjwat la*> MC. *jiwi jwot lâ*)와 그것의 축약형 遺曰(←日)의 두 가지 음사가 모두 보인다. 이것은 아마도 \**vevulla*(遺曰羅)/ \**vevull(a)*(遺曰)<sup>12)</sup>일 것으로,

9) 안타깝게도 중앙아시아의 산스크리트어 단편 고사본에는 해당하는 부분이 잘렸다. cf. BLSF I 196.

10) 오기하라 운라이(荻原雲來)는 약 90세에 *Kāśyapaparivarta* 비판편집본의 편집자인(KP, ix 참고) 홀스타인(von Staël-Holstein)에게 이러한 수정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는 널리 부정되거나 오늘날까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오기하라는 遺曰羅가 *vaiṣṭulya*의 불완전한 변형일 것이라고 여겼다.

11) Schuessler 2009: 312.

12) 지루가참은 그의 『팔천송반야』의 번역에서 摩訶惟曰羅(T.8, no. 224, 468c12; EH. *ma ha źjwæi vjwat la*; \**Maha-vevula* < \**Mahā-vevulla* < BHS. *Mahā-vaiṣṭulya*) 를 사용했다; cf. Krsh 2010, 324, Krsh 2011: 441; Karashima 2013: 176. 遺와 惟는 초기 한역에서 인도

산스크리트어화한 형태인 ‘*vaitulya*’와 ‘*vaipulya*’에 해당하는 지방어이다. 그러므로 본래 문헌은 아마도 ‘\**vevulla-Maṇiratna-dharmaparyāya*’나 ‘\**Mahāratnakūṭa vevulla-dharmaparyāya*’라는 제목이 붙었을 것이다. 진(晉) 왕조에 번역된, 같은 문헌의 두 번째 한역에서 그것은 ‘\**mahāyāna-Ratnakūṭa-dharmaparyāya*(혹은 *-sūtra*)’라고 이름 붙여졌다. 그러므로 한정사가 ‘*vevulla*’에서 ‘*mahāyāna*’로 변화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지광명장엄경』의 다양한 버전에서, 이 문헌은 ‘*vaitulya-*’, ‘*mahāvaiipulya-*’ 또는 ‘*vaipulya-*’ 경전으로 언급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vevulla*(즉, *vaitulya*와 *vaipulya*)로부터 *mahāyāna*까지의 변천을 볼 수 있다.<sup>13)</sup>

## II. 『보적경』(*Ratnakoṭi-sūtra*)

제명을 ‘*vevulla*’(遺曰)로 하는 또 다른 한역 경전이 있다. 그것의 경전명은 승우의 『출삼장기집』에 따르면 T. 12, no. 356 『寶積三昧文殊師利菩薩問法身經』(\**Ratnakoṭisamādhi-Mañjuśrī-bodhisatva-paripṛcchā-dharmadhātu-dharmaparyāya* 또는 *-sūtra*) 또는 『遺曰(←日)寶積三昧文殊師利問法身經』(\**Vevulla-Ratnakoṭisamādhi-Mañjuśrī-paripṛcchā-dharmadhātu-dharmaparyāya* 또는 *-sūtra*)라고 불린다.<sup>14)</sup> 목록집 『역

어 *vi*를 번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예. 遺摩羅涅 *Vimalanetra*, T. 15, no. 624, 363cf. Cf. Coblin 1993, 907; 阿惟潘 [BHS. *Avṛha*, *Abrha*, Pā. *Aviha*], 阿惟三佛 [Gā. *avisa(m)boṣi* < *abhisambodhi*], 阿惟越致 [BHS. *avivarti(ka)*; cf. Krsh 2010: 750]. 반면에 *vut*, *vud*, *vul*와 같은 *vu+*폐쇄음을 번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e.g. 泥曰 (EH. *ni vjwat*; Gā. *ṇivudi* < *nirvṛti*, Gā. *ṇivuda* < *nirvṛta*), 鬱單曰 (Gā. \**Utarayuru* < *Uttarakuru*).

13) *Ratnakūṭa*가 스리랑카의 *Nikāyasamgraha*(14c)에서 언급되었다. *Vaitulya*, *Vājiriya* 학파에 가까운 *sāstra*; *Āndhra* 지방에서 제작했다. Pagel 1995: 73f. 참조.

14) 이 경명은 『출삼장기집』에서(T. 55, no. 2145, 30b20f. 寶積三昧文殊師利菩薩問法身經一

대삼보기』(597년?)에 따르면 이 한역은 안세고에 귀속되지만, 분명히 안세고의 한역은 아니다.<sup>15)</sup> 문헌의 역자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나는 이 한역이 지루가참이나 또는 그의 문하에 의해 행해졌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왜냐하면 이 한역에서의 용어나 문체가 지루가참의 한역들과 매우 잘 일치하기 때문이다. 특히 ‘講’([누군가]에게 말하다)와 ‘用~故’(왜냐하면)의 사용에서 그렇다.

그러므로 가장 오래된 한역은 다음의 명칭을 ‘가졌었다’.

『遺曰(←日)寶積三昧文殊師利問法身經』(\**Vevulla-Ratnakoṭṭisamādhi-Mañjuśrī-paripṛcchā-dharmadhātu-dharmaparyāya* 또는 -*sūtra*)

또 다른 한역과 티벳역이 있다.

『入法界體性經』(\**Dharmadhātusvabhāvāvatārasūtra?*, T. 12, no. 355), 사나굴다(闍那崛多, 523-600년 경), 이 텍스트 자체 내에서 다음과 같이 명명된다. 『文殊師利童子所問』(\**Mañjuśrī-kumārabhūta-paripṛcchā*)

*phags pa Rin po che'i mtha' zhes bya ba theg pa chen po'i mdo*  
(\**ārya-Ratnakoṭṭir nāma mahāyānasūtra*) Pk. No. 786, D. No. 0118

---

卷。或云遺曰[←日]寶積三昧文殊師利問法身經) 승우가 발견할 수 없는 460개의 경전 중 하나로 언급된다. 반면에 『출삼장기집』의 설명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비장방(費長房)은 『역대삼보기』(歷代三寶紀)(597년?)에서 역자를 안세고에게 잘못 귀속시키고 있다. 그 이후 후대 목록 집이나 경전들은 이를 신뢰해왔다. 후대 목록작성자들은 이 기술을 의해 그대로 복사했다. 비장방에 의한 『역대삼보기』, T. 49, no. 2034, 52b10f.; 寶積三昧文殊師利菩薩問法身經一卷(亦云遺日寶積三昧文殊師利問法身經)가 그것이다. T. 55, no. 2153, 373b18f., T. 55, no. 2154, 479b12f., 684c4f., no. 2157, 776b19. 참조.

15) Fang and Gao 2012: 87-100 참조. 여기에서 그것의 어휘 사용이 안세고역의 어휘 사용과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했다.

따라서, 이 경전은 ‘*vevulla*’ 경전으로 불렸을 테지만, 후대에 이 명칭은 제거되었고 훨씬 후대에는 ‘*mahāyānasūtra*’로 변화했다. 이 경전에서, 부처님이 寶積(*Ratnakōṭi*)이라는 삼매에서 나오자,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몇 가지 질문을 했고, 부처님은 이에 답변을 하였다. 그리고서 문수보살이 법계(*dharmadhātu*) 등에 관해 사리불(*Śāriputra*)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고, 그가 답을 하였다. 따라서, 이 경은 위에 인용된 것과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

### III. 『濟諸方等學經』(*Sarvavaitulyasaṃgraha-dharmaparyāya, -sūtra*)

이미 언급했듯이, ‘*vevulla*’는 팔리어로는 ‘*vedalla*’, ‘*vetulla*’, ‘*vetulya*’, 불교 산스크리트어로는 ‘*vaidalya*’, ‘*vaitulya*’, ‘*vaipulya*’, 간다리어로는 ‘*vehula*’라는 변이형이 있다. 어원은 여전히 불분명하다(cf. Norman CP II 44).

앞서 보았듯이, 이 용어는 초기 한역들 중 하나에서 遺日羅/遺日로 음역되었는데, 그것의 원형은 틀림없이 ‘*vevulla/vevull(a)*’였을 것이다. 후대 한역에서, 이 용어는 두 한자로 구성된 복합어인 방등(方等)으로 번역되었다. 이들은 동의어<sup>16)</sup>로, 명백히 산스크리트어 ‘*tulya*’(~와 같은)와 ‘*vaitulya*’와의 연관성에 기반하여, ‘~과 같은, 균형잡힌’을 의미한다.<sup>17)</sup> 따라서 방등(方等)의 인도 원어는 틀림없이 ‘*vaitulya*’, ‘*vetulla*’ 등등이었을 것이다. 유사한 표현으로 방광(方廣)이 있는데, 그것은 방등(方等)보다 후대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와 같은’을 의미하는 방등(方等)은 한자 복합 명사로 자연스럽게

16) Cf. GH 986c, (20) 方, 齊也; (21) 方, 齊等也; (22) 方, 猶等也.

17) Cf. Karashima 1992: 278, note on 63b-5; Krsh 1998: 133-134.

만, 방광(方廣, 글자 그대로 ‘사방 그리고 넓은’ 또는 타당성이 떨어지지만 ‘동일하고 넓은’)은 매우 어색하다. 나는 방광(方廣)이 ‘vaitulya/vetulla’로부터 ‘vaipulya’(큼, 거대한)로 변화함에 따라 등(等, -와 같은)이 광(廣, 넓은)으로 대체되어 어색하게 만들어졌다고 추정한다.

『濟諸方等學經』(*Sarvavaitulyasaṃgraha-dharmaparyāya* 또는 -*sūtra*, 모든 ‘vaitulya’의 개요인 경전)이라는 경전은 ‘vaitulya/vetulla’에서 ‘vaipulya-겸-mahāyāna’까지의 변화를 증명한다.<sup>18)</sup> 두 개의 한역, 카다리크(Khadalik)에서 발견되었다고 추정되고 지금 대영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두 개의 산스크리트어 단편, 그리고 티베트어가 하나가 있다. 그것들의 경전명은 다음과 같다.

『濟諸方等學經』(\**Sarvavaitulyasaṃgraha-dharmaparyāya*?) 축법호(竺法護, Dharmarakṣa) 한역 (233-311년 경), T. 9, no. 274

*Sarvavaitulyasaṃgrah. ... + + +: OR15010/43 verso3 (BLSF II.1. 401, 5-6세기)*

*Sarvavaitulyasaṃgrahadharmaparyāyaṃ...Sarvavaitulyasaṃgrahesūtre: IOLSAN 1457 recto 2f.<sup>19)</sup> 5-6세기*

『大乘方廣總持經』(\**Sarvavaipulyasaṃgraha-mahāyānasūtra*) 비니다류지(毘尼多流支, Vinītaruci) (582년), T. 9, no. 275

*'phags pa rNam par 'thag pa thams cad bsdus pa zhes bya ba theg pa chen po'i mdo (āryaSarvavaidalyasaṃgraha-nāma-mahāyānasūtra): Tib(Pk), no. 893, Tib(D), no. 227*

18) Skilling은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를 다룬 이 경전을 이미 다루었다. Skilling 2013: 90f. 참조.

19) Matsuda 1988: 69. 참조.

이 경전은 산티데바(Śāntideva, 650-750년 경)의 『학집론』(Śikṣāsamuccaya, Śikṣ로 줄임), 카말라실라(Kamalaśīla, 740-795년 경)의 『수습차제』(Bhāvanākrama, Bhk로 줄임), 산티데바의 『입보리행론』(Bodhicaryāvatāra)에 대한 프라즈냐카라마티(Prajñākaramati, fl. 10세기)의 주석 속에서 인용되어,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다.

*Sarvadharmavaipulyasaṃgrahasūtra* ~: Śikṣ 95.11

*Sarvadharmasaṃgrahaivaipulya* ~: Bhk(I) 195.18

*Sarvadharmavaipulya* ~: Bhk(III) 26.9f.

*Chos thams cad shin tu rgyas pa bsdus pa* (\**Sarvadharmavaipulyasaṃgraha*): Bhk(II) 61.1.

*Sarvadharmavaipulyasaṃgraha* ~: Bca-P 147.8

이 경전은 582년에 역경된 두 번째 한역과 7세기 혹은 8세기 이후의 인도 작품들에서의 인용에서 ‘vaipulya’로 불렸던 반면에, 가장 빠른 한역과 카다리크의 산스크리트 단편들에서는 ‘vaitulya’로 불렸던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한역의 경전명들로부터, 그것의 원전이 ‘mahāyāna-sūtra’라고도 불렸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두 번째 한역의 내용들이 보다 상세하지만, 티베트역은 전반적으로 첫 번째 한역과 상당히 일치한다. 티베트역의 고문체는 티베트역 안에서 발견되는 산스크리트어 제명 ‘*Sarvavaidalyasaṃgraha-nāma-mahāyānasūtra*’에 의해 또한 규명된다.<sup>20)</sup>

이 경전에는 두 명의 설법자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축법호의 가

20) Tib(Pk), vol. 35, p. 121, 187a2. 이 경명은 *Mahāvvyutpatti*에서도 또한 발견된다: Mvy. 1385. *Sarvavaidalya-saṃgrahaḥ*.

장 오래된 한역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법(Dharma)이라는 이름을 가진 승려가 수천 개의 방등 경전들을 가졌지만, 또 다른 승려 정명(淨命)은 1억 4천만 개의 방등 경전들과 다른 장르의 6백만 개의 경전들을 가졌다.”<sup>21)</sup> 또한 티베트어 역본은 다음과 같다. “정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승려가 백만 개의 타 경전들과 6만 개의 ‘*vaidalya-*’ 경전을 가졌지만, 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승려는 천 여개의 ‘*vaidalya-*’ 경전을 가졌다.”<sup>22)</sup> 두 번째 한역은 다음과 같다. “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승려가 몇 천개의 ‘*mahāyāna-vaipulya-dharmaparyāya*’를 받고 가지고 있었던 반면, 정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승려는 14억 개의 경전들과 6백만 개의 *mahāyāna* 경전을 가졌다.”<sup>23)</sup>

그러므로 이 경전의 다양한 버전에서 ‘*vaitulya*’로부터 ‘*vaipulya-검-mahāyāna*’로의 변이를 볼 수 있다.

#### IV. 『阿惟越致遮經』(*Avaivartikacakradharmaparyāya* 또는 *-sūtra*)

‘*vaitulya*’로부터 ‘*vaipulya*’, 마침내 ‘*mahājñāna(!)*’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있는데 이는 3개의 한역과 1개의 티베트역이 존재하는 ‘*Avaivartikacakrasūtra*’이다.

21) T. 9, no. 274, 375c29f. 時有比丘名曰爲法 … 奉持方等千餘經卷。… 淨命比丘學方等經十四億卷, 及修餘經六百萬卷。

22) Tib(Pk), vol. 35, p. 121, 190b7f. *dge slong Chos zhes bya ba phyin te // des rnam par 'thag pa'i mdo stong bzung ngo // bsam gtan bzhi yang thob par gyur to // dge slong 'Tsho ba yongs su dag par ni mdo sde bye ba phrag bcu dang // rnam par 'thag pa'i mdo sdug khri bzung par gyur to.*

23) T. 9, no. 275, 380a18ff. 有一比丘名曰淨命, 總持諸經十四億部大乘經典六百萬部爲大法師。… (380b2f.) 復有比丘名曰達摩。於大乘經方廣正典受持千部。

『阿惟越致遮經』(\*Avaivarti(ka)ca(kra)-dharmaparyāya 또는 -sūtra) 축  
법호 역 (284년<sup>24</sup>), T. 9, no. 266 (abbr. Dr)

『廣博嚴淨不退轉輪經』(\*Avaivartikacakra-vaipulya-vyūha-dharmaparyāya  
또는 -sūtra) 지엄(智嚴) 역 427년, T. 9, no. 268 (abbr. Zy)

『不退轉法輪經』(\*Avaivartikacakra-dharmaparyāya 또는 -sūtra) 익명의  
역자 북량(北涼) 시대(401-439년)<sup>25</sup>, T. 9, no. 267 (abbr. Bl)

'phags pa Phyr mi ldog pa'i 'khor lo zhes bya ba theg pa chen po'i  
mdo (*ārya-Avaivartacakra-nāma-mahāyāna-sūtra*), Tib(Pk), no. 906,  
Tib(D), no. 240 (abbr. Tib)

이 경전들 내에서, 그 자체의 경전명은 다음과 같이 언급 된다.

Dr (284년) 不退轉輪方等之法<sup>26</sup> (\*Avaivartikacakra-vaipulya-dharmaparyāya)

Zy (427년) 廣大不退轉輪(\*Avaivartikacakra-vaipulya), 廣博嚴淨不退  
轉輪(\*Avaivartika-cakra-vaipulya-vyūha)<sup>27</sup>

Bl (427-?년) 不退轉法輪廣博嚴淨(\*Avaivartikacakra-vaipulya-vyūha)<sup>28</sup>

Tib. Phyr mi ldog pa'i 'khor lo ye shes chen po bstan pa (\*Avaivartikacakra-  
*mahājñāna-nirdeśa*)<sup>29</sup>

24) T. 55, no. 2145, 7c2. 『阿惟越致遮經』四卷 — 太康五年十月十四日出。

25) 이를 더 연구할 필요가 있겠지만, 나는 이 한역이 도진(道秦 (fl. 427 ~))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추정한다. 왜냐하면 그것의 경명이 견의(堅意, Sthiramati)의 『입대승론』(入大乘論, \*Mahāyānavatāra)의 한역에서 인용되었고, 그것은 도진에 의해 437-439년 즈음에도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T. 32, no. 1634, 45b20f. 如『不退轉法輪經』中廣說。

26) T. 9, no. 266, 226a3.

27) T. 9, no. 268, 285a25f.

28) T. 9, no. 267, 254b2f.

29) Tib(Pk), vol. 36, no. 906, 320a7f.; Tib(D), no. 240, mDo sde, zha 301a2. Cf. Apple 2014: 161, n. 11.

티베트역의 경명에서 단어 ‘*ye shes chen po(mahājñāna)*’는 ‘*mahāyāna/mahājñāna*’와의 혼동을 연상시킨다. 나는 다른 논문에서 ‘*mahāyāna*’라는 용어가 본래는 기본적으로 ‘*buddha-jñāna*’(부처의 지혜)를 의미하는 ‘*mahājñāna*’(위대한 지혜)였음을 증명했다.<sup>30)</sup> 세 개의 한역 중 어떤 것도 ‘*mahāyāna*-경’이라고 불리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전의 다양한 버전에서 ‘*vaitulya*’에서 ‘*vaipulya*’, 그리고 마침내 ‘*mahājñāna/mahāyāna*’로의 변이를 볼 수 있다.

## V. 『如來藏經』(*Tathāgatagarbha-dharmaparyāya*)

『如來藏經』의 두 개의 한역과 티베트역은 역시 ‘*vaitulya*’에서 ‘*vaipulya*’, 그리고 마침내 ‘*mahāyāna*’로의 변화를 보여준다.

『大方等如來藏經』(\**Mahāvaitulya-Tathāgatagarbha-dharmaparyāya*),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 Buddhahadra, 359-429년) 420년, T. 16,

no. 666<sup>31)</sup>

『大方廣如來藏經』(\**Mahāvaiipulya-Tathāgatagarbha-dharmaparyāya*),

불공(不空, Amoghavajra, 705-774년), T. 16, no. 667

*'phags pa De bzhin gshegs pa'i snying po zhes bya ba theg pa chen*

30) Karashima 2001a: 170, n. 115; 2001b: § 2.7, 215-217; forthcoming.

31) 『출삼장기집』에 의하면(510-518년; T.55, No.2145), 법거(法炬, fl. 4세기 초반)가 동명의 경전을 번역했다. 즉, 『대방등여래장경』(大方等如來藏經)이다. 그러나 그것은 6세기 초에 이미 소실되었다. T.55, no.2145, 11c15. 『大方等如來藏經』一卷 — 或云『如來藏』。今闕; 14b12. 『大方等如來藏經』 — 釋法炬出『大方等如來藏』一卷。佛馱跋陀出『大方等如來藏』一卷。

*po'i mdo* (*ārya-Tathāgatagarbha-nāma-mahāyāna-sūtra*), 샤카프라바(Śakyaprabha)와 예세테(Ye shes sde), 800년 경, Tib(Pk), no. 924, Tib(D), no. 258

문헌 자체에서 이 경전은 *Tathāgatagarbha-dharmaparyāya* (*De bzhin gshegs pa'i snying po'i chos kyi rnam grangs* 또는 - *chos kyi gzhung*<sup>32)</sup>)로 언급된다.

## VI. 『普曜經』(*Lalitavistara*)<sup>33)</sup>

오카노 키요시의 엄밀한 연구에 의하면, 『普曜經』는 대략 150년 경 간다라에서 대중부 승려에 의해 편찬되었을 것이다. 이 경전에는 두 개의 한역이 있다.

『普曜經』(\**Lalitavistara-dharmaparyāya*) 일명 『方等本起』(\**Vaitulya-nidāna*<sup>34)</sup>), 축법호 역, 308년<sup>35)</sup>, T. 3, no. 186 (abbr. Dr)

32) Zimmermann 2002: 354.1f, 355.1f. 참조.

33) 오카노(岡野)에 의하면, *Lalitavistara*는 150년 경 서북인도에서 대중부에 속한 승려가 지었다 (*loka-anuvṛt*, *lokottara*를 사용한다. 책을 숭배하지 않고, *caitya* 숭배를 말한다. *stūpa* 숭배가 아니다. 미륵이 유일한 보살이었지만, 그것도 범본만 그렇고 한역에서는 아니다. 공은 대부분 말하지 않는다. 보살신앙이나 (10)지 사상의 맹아만 엿볼 수 있다. 후대의 부가 부분은 대중부/대승을 겸학한 승려에 의해 이루어졌다.). de Jong 1998: 253. 참조.

34) LV 7.9. *idaṃ ... vaipulyasūtram hi mahānidānam* 참조; 7.15. *tad ... vaipulyasūtram hi mahānidānam*

35) Cf. 『開元釋教錄』(730년 이후): ‘『普曜經』八卷: 一名『方等本起』。安公云‘出方等部’。永嘉二年五月於天水寺出。第二譯。……’ (T. 55, no. 2154, 494a19f.) = 『貞元新定釋教目錄』(800년), T. 55, no. 2157, 791b7f.

『方廣大莊嚴經』(\**Vaipulya-mahā-Lalitavistara-dharmaparyāya*) 일명 『神通遊戲』(\**Vikrīḍita*), 지바하라(地婆訶羅, Divākara) (614-688년), T. 3, no. 187 (abbr. Dv)

산스크리트 본(abbr. LV): *śrīLalitavistaro nāma mahāyānasūtram ratnarājam* (LV 444.18) = 'phags pa rGya cher rol pa zhes bya ba theg pa chen po'i mdo, Tib(Pk), no. 763, Tib(D), no. 95

이 텍스트 자체 내에서, 경명은 다음과 같이 언급 된다.

Dr. 483b18. 普曜大方等典(\**Lalitavistara-mahāvaitulya-dharmaparyāya*) (= 483c6), 484a3. 普曜經典大方等法(\**Lalitavistara-sūtra mahāvaitulya-dharmaparyāya*), 530c12; 普曜大方等法(\**Lalitavistara-mahāvaitulya-dharmaparyāya*)

Dv. 539b23f. 有經名爲『方廣神通遊戲大莊嚴法門』(\**Vaipulya-vikrīḍita-mahā-Lalitavistara-dharmaparyāya*); 540a10. 神通遊戲大嚴(v.1. 莊嚴) 經典(\**Vikrīḍita-mahā-Lalitavistara-dharmaparyāya*); 540a15f. 方廣神通遊戲大嚴(v.1. 莊嚴) 經典(\**Vaipulya-vikrīḍita-mahā-Lalitavistara-dharmaparyāya*); cf. 588a10. 方廣神通遊戲大嚴之定

LV 4.17f. = LV(H) 274.10. *Lalitavistaro nāma dharmaparyāyaḥ sūtrānto mahāvaiipulyanicayo*; 6.16 = LV(H) 276.28f. *Lalitavistaram nāma dharmaparyāyam*; 7.20f. = LV(H) 282.3. *Lalitavistaro nāma dharmaparyāyaḥ sūtrānto mahāvaiipulyaḥ*; 438.20f. *Lalitavistaro nāma dharmaparyāyasūtrānto mahāvaiipulyabodhisattvavikrīḍitaḥ*; cf. LV 7.9 = LV(H) 278.25f. *idaṃ ... vaipulyasūtram hi mahānidānam*; 7.15 = LV(H) 280.9f. *tad ... vaipulyasūtram hi mahānidānam*

그러므로, 이 경전 역시 ‘*vaitulya*’에서 ‘*vaipulya*’, 그리고 마침내 ‘*mahāyāna*’로의 변화를 보여준다.

## VII. 『법화경』(*Saddharmapuṇḍarīka-sūtra*)

내가 다른 논문에서<sup>36)</sup> 증명한 바와 같이, 『법화경』의 산스크리트어 사본과 한역에는 ‘*vaitulya/vaipulya*’ 변형의 예가 많다.

5-8세기 경 산스크리트어 중앙아시아의 사본들과 단편들(abbr. O, SIP, H6, Wille 2000)은 보통 ‘*vaitulya*’로 읽는 반면, 길기트 사본(7세기 혹은 8세기)과 네팔 사본(11세기 이후, KN로 줄임<sup>37)</sup>)에는 ‘*vaipulya*’로 적혀있다.<sup>38)</sup> 티베트역에서 ‘*shin tu rgyas*’와 ‘*rab rgyas*’로 읽히는 것은 후자와 일치한다. 286년의 축법호 역(Dr로 줄임, T. 9, no. 263)은 방등(=*vaitulya*)이라고 적혀있다. 반면, 406년의 쿠마라지바 역(Kj로 줄임, T. 9, no. 262)은 대승(=*mahāyāna*)/대승경(*mahāyāna*의 가르침)으로 되어 있다.

Dr. 63b25. 方等; KN. 5.8. *mahāvaipulya*~(= O etc.); SIP/11, no. 40<sup>39)</sup>.  
*mahāvaitulya*~; Kj. 2b8. 大乘經

36) Karashima 1992: 29 (63b-5), 37 (66a-12), 51(70b7), 80(79c9), 80(79c-11), 102 (86c-7), 114(91c-6), 120(93c4), 278, note on 63b-5; Krsh 1998: 133-134.

37) 길기트 사본에서의 읽기가 네팔 사본에 근거하고 있는 Kern-Nanjio 편집본과 다를 때는, 길기트 사본의 읽기가 주목된다.

38) 중앙 아시아 사본에서의 *vaitulya*와 보다 중세 인도어 형태인 *vetulya*은 Toda 1974: 68-69에서 연구되었다.

39) Petrovsky Collection의 단편 읽기는 Bongard-Levin/Vorob'eva-Desjatovskaja 1985: 127에 보인다.

Dr. 66a18. 方等正經; KN. 19.12. *mahāvaiṣṭulya*~; O. *mahāvaitulya*~;

Kj. 4a9. 大乘經

Dr. 70b12. 方等經; KN. 46.8. *vaiṣṭulya-sūtra*~; O. *vaitulya-sūtra*~;

Kj. 8a14. 大乘

Dr. 79c9. 方等; KN. 98.3. *vaiṣṭulya*-; O, H6(302)<sup>40</sup>, Wille 2000: 47. *vaitulya*-; Kj. 16a21. 大乘

Dr. 79c19. 方等經; KN. 98.11. *vaiṣṭulya-sūtra*~; O. *vaitulya-sūtra*~;

Kj. 16a28. 大乘

Dr. 81a19. 方等; KN. 110.6.-; Kj. 17c6. 大乘

Dr. 86c23. 方等經; KN. 146.8. *vaiṣṭulya-sūtrānta*-; O. *vaitulya-sūtrānta*-; Kj. 20c22. 大乘經典

『법화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장은 ‘*vaiṣṭulya*-/*vaitulya-sūtra*’가 진리이며, 전통적인 아홉 종류의 가르침(즉, *sūtra*, *gāthā*, *itivṛttaka* 등)은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방편품」(*Upāyakaṣāya-parivarta*)의 45-50절을 보면,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아홉 종류의 가르침을 사람들의 근기에 맞게 부처의 지혜로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서 설했다. 이제 여기에는 몇 백만 부처님께 봉사하는 순수하고 총명하며 온화한 부처의 아들들이 있다. 따라서 나는 그들에게 ‘*vaiṣṭulya*-/*vaitulya-sūtra*’를 설할 것이다(Dr. 70b7. 方等經 = O, Wille 1998, 245. *vaitulya-sūtra*~; KN. 46.4. *vaiṣṭulya-sūtra*~; Kj. 8a10. 大乘經).”

여기서 주목할 중요한 점은 이 경전이 경전 자체 내에서 ‘(mahā-) *vaitulya* / -*vaiṣṭulya*’로 불린다는 사실이다.

40) 대영박물관의 단편의 읽기는 Toda 1983: 302.2. 참조.

Dr. 66b3. 『正法華方等』; KN. 21.1. *Saddharmapuṇḍarīkaṃ nāma dharmaparyāyaṃ*; O. *Sad° nāma dha° sūtraṃ mahāvaitulyaṃ*; Kj. 4a24. 大乘經名『妙法蓮華』

Dr. 66b7. 『法華方等正經』; KN. 21.6. *Sad° dharmaparyāya ~ sūtrānta ~ mahāvaiṇḍulya ~*; O. *Sad° dharmā° sūtra ~ mahāvaitulya ~*; Kj. 4a29. 是經

Dr. 91c24. 『正法華』方等經典; KN. 181.5f. *Sad° nāma dharmā° sūtrānta ~ mahāvaiṇḍulya ~*; O. *Sad° nāma dharmā° sūtra ~ mahāvaitulya ~*; Kj. 25a28. 大乘經名『妙法蓮華』

Dr. 124b3. 『正法華經』方等典詔; KN. 389.7f. *Sad° nāma dharmā° sūtrānta ~ mahāvaiṇḍulya ~*; O. *Sad° nāma dharmā° sūtra ~ mahāvaiṇḍulya ~* (sic); Kj. 52a5. 大乘經名『妙法蓮華』

Dr. 93c4. 斯『正法華』... 大方等經; KN. 193.7. *Sad° vaiṇḍulyasūtra ~*; O. <*Sad°*> *vaiṇḍulyasūtra ~*; Kj. 26c10. 『法華經』

또한 경전의 각 장 끝에서, 길기트-네팔 사본에는 ‘*Saddharmapuṇḍarīka ~ dharmaparyāya ~*’라고 적혀있는 반면, 파하드-벵 야일라키(Farhād-Bēg Yailaki)에서 발견되어 현재는 대영도서관에 소장된 소위 카슈가르 사본(O)과 다른 중앙아시아 사본에서는 각각 ‘*Saddharmapuṇḍarīka ~ mahāvaiṇḍulyasūtraratna ~*’와 ‘*Saddharmapuṇḍarīka ~ mahāvaiṇḍulyasūtraratna ~*’로 적혀 있다. 소위 카슈가르 사본의 읽기는 다음과 같은 코탄 문헌과 일치한다. “*Saddharmapuṇḍarī ~ sūtra ~ ... mahāvittūlyasūtrīnai raṃṇā.*”<sup>41)</sup> 게다가, 축법호가 286년에 번역한 『법화경』의 가장 빠른 한역은 현재 『정법화경』<sup>42)</sup>이라 불리고 있지만, 승우(445-518)의 『출삼장기집』(T. 55, no.

41) Bailey 1971: 53. Cf. Norman, CP II 44f. 참조.

2145, 7b14, 510-518년)에 따르면, 『방등정법화경(方等正法華經)』이라고 불렸다. 그 목록집에 따르면, 335년에 지도근(支道根)이 역경했던 『방등법화경(方等法華經)』이라는 경전명을 지닌 5권으로 구성된 또 하나의 한역이 있었지만, 현재는 소실되었다.<sup>43)</sup>

축번호 한역의 원전 제목은 중앙아시아 산스크리트어 사본들처럼 ‘*vaitulya*’나 그와 비슷한 단어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쿠마라지바 번역의 원전 또한 같은 식으로 읽혔을 것이나, 그는 ‘*vaitulya*’를 ‘*mahāyāna*’의 동의어로 여겨서 대승으로 번역했다. 어떤 경우에도 원문이 ‘*vaitulya*’가 아닌 ‘*mahāyāna*’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vaitulya*’는 후대에 ‘*vaipulya*’로 대체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중앙아시아 사본에서 특이한 ‘*vaitupulyasūtram*’의 형태들(186 verso 1, cf. KN. 193.7. *vaipulyasūtram*)과 ‘*mahāvaitupulyasūtra*’ 형태들(211 recto 6, cf. KN. 223.3.-)이 발견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vaitulya*’와 ‘*vaipulya*’간의 변이의 동요를 암시하고, 아마도 필사자는 두 용어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두 용어를 합친 형태를 만들었을 것이다.

축번호의 『법화경』 번역에서 ‘대승 경전’을 의미하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쿠마라지바의 시대에 ‘대승(*mahāyāna*) 경전’이 유명해진 것에 비해, 축번호의 시대에는 그것이 흔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42) T. 55, no. 2145, 7b14. 『正法華經』十卷-二十七品。舊錄云『正法華經』或云『方等正法華經』太康七年八月十日出。

43) 비장방(費長房)의 『역대삼보기』(597년?), T. 49, no. 2034, 69a27f. 『方等法華經』五卷。咸康元年譯... 成帝世, 沙門支道根出。또 T. 49, no. 2035, 339c22; T. 55, 2149, 244c13. 참조

VIII-1. 도안의 목록서에서 *vaitulya*-경전

승우(445-518)의 『출삼장기집』(T. 55, no. 2145, 510-518년)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역불교 문헌목록집이다. 도안(道安, 312-385)이 편찬한 『종리중경목록』(綜理衆經目錄, 374-385년?)<sup>44)</sup>이라는 상당히 이른 목록집이 『출삼장기집』 3권에 부분적으로 인용되었다(T. 55, 15b-19c). 도안의 목록을 조사하면서, 완벽하지 않지만 4세기 말 경 역경된 한역의 인도 원전에서 ‘*vaitulya/vaipulya/mahāyana*’라는 세 용어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다.

『대진보적유일경』(大珍寶積惟日經)(19b19)으로 지칭되는 문헌은 아마도 \**Mahāratnakūṭa vevulla-dharmaparyāya*의 한역인 『대진보적유일경』(大珍寶積惟日經)의 오기일 것이다.

방등(=*vaitulya*)이라는 경명을 가진 경은 두 편이다.

『내장대방등경(內藏大方等經)』<sup>45)</sup>(1권, 18a15)

『방등결경(方等決經)』<sup>46)</sup>(1권, 19c3).

도안이 방등부(方等部), 곧 ‘*vaitulya*’ 부류로 분류한 경전은 다섯 편이다.

『보살도지경(菩薩道地經)』(1권, 15b24)

『태피타보살경(毘披陀菩薩經)』(1권, 15b25)

『내외육바라밀경(內外六波羅蜜經)』(1권, 17c25)

『목구경(目佉經)』(1권, 18a23), 『방발경(放鉢經)』(1권, 18b13)이다.

44) Cf. Hayashiya 1941: 351ff.

45) Cf. Hayashiya 1941: 520f.

46) Cf. Hayashiya 1941: 1146f.

따라서 ‘\**vevulla*’나 ‘*vaitulya*’의 명칭을 포함한 경전이나, ‘*vaitulya*’로 분류된 경전은 있지만, ‘*vaipulya*’나 ‘*mahāyāna*’를 포함한 경전은 없다.

## VIII-2. 『출삼장기집』에서 *vaitulya*- / *vaipulya*- / *mahāyāna*- 경전들

도안의 오래된 목록집에 열거된 불교경전들을 제외하고, 승우의 『출삼장기집』(518년)에서는 910개의 불교경전 명을 언급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遺曰(←日)摩尼寶經』(29c17, \**vevulla*-*Maṇiratna-dharmaparyāya*)와 『遺曰(←日)寶積三昧文殊師利問法身經』(\**vevulla*-*Ratnaśoṭisamādhī-Maṅjuśrī-paripṛcchā-dharmadhātu-dharmaparyāya*)을 제외하면, 지루가참이 한역한 ‘*vaitulya*’ 부류의 오래된 반야 경전인 『遺曰(←日)說般若經』(\**vevulla*-*Prajñāpāramitā*?)이 있었으나, 이 책은 승우 시대에는 이미 소실되었다.<sup>47)</sup> 또한, ‘\**vevulla*경전’으로 보이는 두 편의 경전명이 있다.

『惟曰(←日)雜難經』(29a6, T. 17, No.760, 지겸(支謙) 한역 [fl. 222~252년])

『惟曰(←日)三昧經』(36c23, 소실).

경전명에 (대)방등(=[*mahā*]-*vaitulya*)을 포함하는 12편의 경전들이 있다.

47) T.55, 6b14. 方等部古品{曰} 『遺曰(←日)說般若』一卷今闕; 14a04. 『般若經』一支識出 『般若道行品經』十卷, 出古品『遺曰(←日)般若經』一卷.

- 『十二門大方等經』(1권, 7a21, 소실, ZQ 역)  
 『方等正法華經』(7b14, 286년, Dr 역)  
 『濟諸方等經』 일명 『濟諸方等學經』(7c20, Dr 역)  
 『方等泥洹經』(2권, 8a10, 269년 Dr 역)  
 『大方等頂王經』(8a15, Dr 역)  
 『大方等如來藏經』(9c20, 14b12 420년 불타발타라(Buddhabhadra) 역)  
 『大方等如來藏經』(11c15, 14b12 4세기 초반에 법거(法炬) 역, 소실)  
 『方等大集經』(29권, 11b12, 담무참(Dharmakṣema) 역 [fl. 412~433년])  
 『方等王虛空藏經』(5권, 11b14, 14c14, 담무참 역)  
 『方等大雲經』 일명 『方等無想大雲經』(4권 또는 6권, 11b15, 담무참 역)  
 『方等泥洹經』(2권, 11c26, 소실, 5세기 초반, 법현(法顯) 역)  
 『方等檀特陀羅尼經』 일명 『大方等陀羅尼』(4권, 12a15, 397-418년, 법중(法衆) 역)

이들을 제외하고, 방등과 대승 모두를 경전명에 포함하고 있는 또 다른 경전이 있다.

『大乘方等要慧經』 일명 『方等慧經』 일명 『要慧經』(1권, 29c16, T. 12, no. 348)

비장방의 『역대삼보기』(597년?)는 이 경전을 안세고에게 잘못 귀속시켰지만, ‘吾’(나), ‘汝’(너), ‘敢’(모두), ‘大佳’(매우 좋은), ‘善權’(방편), 그리고 ‘大乘’(큰 수레)과 같은 표현의 사용은 지검과 축법호, 또는 동시대인에 의해 번역되었을 것임을 암시한다. 추정컨대, ‘대승’이라는 단어는 후대에 경전명에 추가되었을 것이다.

도안이 방등부(方等部) 혹은 ‘vaitulya’의 부류로 분류한 일곱 편의 경전들이 있다.

『問署經』 일명 『文殊問菩薩署經』(1권, 6b18, Lk 역)

『內藏百品經』(1권, 6b24, Lk 역)

『法鏡經』(1권, 6c3, 181년 안현(安玄)과 엄불조(嚴佛調) 역)

『普耀經』(8권, 7b15; 308년 Dr 역)

『頂王經』(1권, 8a15, 위의 인용된 『大方等頂王經』의 또 다른 경명<sup>48)</sup>, Dr 역)

『樓炭經』(5권, 8c20, Dr 역과 T.55, No.2145, 17c25)

『內外六波羅蜜經』 일명 『內六波羅蜜經』(1권, 17c25, 188년 엄불조 역, T. 17, no. 778).

이것들을 제외하고, 『역대삼보기』는 도안에 의해 방등부로 분류된 『뢰타화라경(賴吒和羅經)』(1권, *Rāṣṭrapāla-sūtra*)을 열거하고 있다.<sup>49)</sup>

대방광(= *mahā-vaipulya*)을 경명에 포함하는 3개의 경전이 있다.

『大方廣佛華嚴經』(50권, 11c10, 420년 불타발타라 역, T. 9, no. 278)

『大方廣如來性起微密藏經』 일명 『如來性起經』(2권, 21c18, 이전 번역에서 「성기품(性起品)」[*Tathāgatotpattisambhavanirdeśa*] 발췌 역<sup>50)</sup>),

『大方廣菩薩十地經』(1권, 22c24, 길가야(吉迦夜[\**Kimkārya?*], fl. 472년 경 이후) 역, T. 10, no. 308).

48) T.55, no.2145, 8a15. 『頂王經』一卷——一名『維鞋子問經』。安公云出方等部或云『大方等頂王經』.

49) T. 49, no. 2034, 53c18. 『賴吒和羅經』一卷——初出道安云: ‘出方等部’.

50) Kimura 1999: 678f.; Kawano 2006: 238f.

이 세 경전들이 『화엄경』의 번역본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경명에 대승(大乘)이나 ‘마하승(摩訶乘=*mahāyāna*)’이 포함된 4개의 경명이 있다.

『大乘方便經』(2권, 21c27, Nandi 역[축난제(竺難提), fl. 419년 이후], T. 11, no. 310-38)

『大乘方等要慧經』 대승이 아마도 후에 추가된 경으로서 앞서 언급하였다.

『摩訶乘寶嚴經』(1권, 29b25, 진(晉)나라 때의 역자미상 [265-420년] = 『摩訶衍寶嚴經』(\**mahāyāna-Ratnakūṭa-dharmaparyāya*)

『摩訶乘經』<sup>51)</sup>(14권, 32a8, \**mahāyāna-sūtra*, 소실), 이것은 한 문헌의 경전명인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출삼장기집』에 인용된 경전명 중 \**vevulla-*경’은 4편, (*mahā*)*vaitulya-*경’은 12편, *mahāvaiṣṭulya-*경’은 3편, 그리고 *mahāyāna-*경’은 3편이다. 앞서 보듯이, \**vevulla-*와 (*mahā*)*vaitulya-*경’은 훗날 *mahāyāna-sūtra*’로 개칭된다. 그러므로 후대에 그리고 현재까지 *mahāyāna-sūtra*’라 부르는 경전들은 기존에 \**vevulla-/vaitulya-*’라고 불렀다는 것을 결론 내릴 수 있다. 『화엄경』 번역본만이 *vaiṣṭulya*’라고 이름 붙여졌다. 『대승방편경(大乘方便經)』 또는 『마하승(=연)보엄경(摩訶乘(=衍)寶嚴經)』이 가장 최초의 *mahāyāna-*경’일 것이고, 그와 같은 이름은 5세기 초반에야 등장했다.

51) 승우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摩訶乘經』十四卷一 改字訓曰(←日)‘乘’, 그것은 그가 『摩訶衍經』 중 음역한 衍을 번역어 乘로 바꿨다는 것을 의미한다.

### VIII-3. 『역대삼보기』에서 *mahāvaitulya-/mahāvaipulya-/mahāyāna-* 경전들

비장방이 편찬한 『역대삼보기』(597년?, T. 49, no. 2034)는 현존하는 한역불교 문헌목록집 중 두 번째로 오래되었다. 『출삼장기집』보다 80년 정도 후에 편찬되었으며, 대부분의 경전명은 주로 『출삼장기집』의 목록서로부터 단순히 베껴 썼다. 따라서, 다음의 새로 추가된 경전명들만 고려 할 수 있다.

경전명에 (대)방등(=*mahā-vaitulya*)을 포함한 경전 12편이 있다.

『方等首楞嚴經』(2권, 57b7, 223년, ZQ 역)

『大方等無相經』 일명 『方等大雲經』 일명 『方等無相大雲經』 일명 『大雲無相經』 일명 『大雲密藏經』(4권, 5권 또는 6권, 77a19, 84b2, 109c26 = T. 12, no. 387. 『大方等無想經』(426년 담무참 역)

『佛藏大方等經』(1권, 94a3, 송왕조[420-479년]에 도엄(道嚴), 소실)

『大方等修多羅王經』(1권, 111b18, 535년 보리유지 역)

『大方等日藏經』(15권, 102c10, 585년 나련제야사 역).

경명에 대방광(=*mahā-vaipulya*)을 포함하는 경전 두 편이 있다.

『大方廣如來祕密藏經』(1권, 112c4, 진(秦) 왕조[351-431년] 익명의 역자, T. 17, no. 821)

『大方廣寶篋經』(3권, 91b4, 443년 구나발타라, T. 14, no. 462).

경전명에 ‘대승’을 포함하는 경전 다섯 편이 있다.

『大乘瓔珞莊嚴經』 일명 『樂瓔珞莊嚴方便經』(1권, 94a14, 담마야사[fl. 405-], T. 14, no. 566)

『大乘寶雲經』(8권, 88b26, 양 왕조[502-557년] 만다라선(曼陀羅仙, \*Maṇḍalasena)과 승가바라(僧伽婆羅, \*Saṅghabhara?) 역, *Ratnamegha-sūtra*, T. 16, no. 659 )

『大乘頂王經』(1권, 98c17, 538-541년 월파수나(月婆首那, \*Upaśūnya), T. 14, no. 478)

『大乘同性經』(2권 또는 4권, 100b13, 110b6, 570년 사나야사(闍那耶舍, \*Jinayaśa 또는 \*Jñānayaśa); T. 16, no. 673)

『大乘方廣總持經』(1권; 102c2, 112a16; 582년 비니다류지; T. 9, no. 275; III를 참고).

경전명에 ‘대승’을 포함하는 두 편의 의심스런 경전도 있다

『摩訶衍優波提舍經』(5권; 60a28; \**Mahāyāna-upadeśa*; 소실)

『大乘蓮華馬頭羅剎經』(1권; 113c7; 소실)

따라서 597년 경에 편집된 이 목록집에는 의심스러운 경들을 포함하여, ‘*vaitulya*-경전’ 12편, ‘*mahā-vaipulya*-경전’ 2편, ‘*mahāyāna*-경전’ 7편이 『출삼장기집』의 목록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발견된다.

여기서 ‘*mahāyāna*-경전’은 6세기에 증가 추세인 반면, ‘*vaitulya*-경전’은 여전히 그 시기에도 성행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 VIII-4. 당 왕조와 송 왕조에서 *vaitulya*-경전들의 소멸과 *mahāyāna*-경전들의 증가

앞서 보았듯, 다양한 목록집에서 경전명이 발견되었는데, 발견된 경전 중 상당수가 소실되었다. 다음은 경명에 ‘\*vevulla’, ‘방등/대방등’이 포함된 현존하는 경전의 제목들이다:

No. 350. 『遺曰(←日)摩尼寶經』 지루가참 한역, 179년, I장 참고

No. 356. 『寶積三昧文殊師利菩薩問法身經』 일명 遺曰(←日)寶積三昧文殊師利問法身經 지루가참 역(?)은 II장 참고

No. 348. 『{大乘}方等要慧經』 일명 『方等慧經』, 역자가 안세고로 잘못 귀속되었다. 아마도 지검이나 축법호가 번역했거나 그들과 동시대인이 한역했을 것이다. VIII.2 참고

No. 274. 『濟諸方等學經』 축법호 역(233-311년 경), III 참고

No. 378. 『方等般泥經』 축법호 역

No. 477. 『大方等頂王經』 축법호 역

No. 1339. 『大方等陀羅尼經』 법중(法衆) 역, 397-418년.

No. 666. 『大方等如來藏經』 불타발타라 역, 420년.

No. 387. 『大方等無想經』 담무참 역, 426년.

No. 575. 『大方等修多羅王經』 보리류지 역, 535년.

No. 992. 『大方等大雲經請雨品』 사나야사 역, 북조(北周)의 557-581년.

No. 397-14: 『日藏分』 일명 『大乘大方等大集日藏經』 나련제야사 역, 585년.

No. 397-15: 『月藏分』 일명 『大方等大集月藏經』 나련제야사 역, 585년.

No. 397. 『大方等大集經』 전반부는 주로 담무참이 414-426년 한역, 후반부는 나련제야사가 585년에 한역, 승취(僧就)가 586년 1 권으로 편집.

No. 416. 『大方等大集經賢護分』 사나굴다 역, 594/595년.

No. 310-36. 「善注意天子會」 일명 『大方等住意天子所問經』 달마굽다(達摩笈多, Dharmagupta) 역, 수(隋) 왕조의 605-616년(大業 연간).

No. 415. 『大方等大集經菩薩念佛三昧分』 달마굽다, 605-616년.

그러므로, 17편의 ‘\**vevulla/vaitulya-/mahāvaitulya*-경전’이 2세기에 서 7세기 초반에 걸쳐있다. 또한 다음을 주목해야 한다. 즉, ‘\**vevulla*’와 ‘*vaitulya*-’는 초반에 사용되었지만, 후대에는 오직 ‘*mahāvaitulya*’라는 용어가 이용되었다. 이 장르의 가장 마지막 경전은 7세기 초반에 번역되었는데, 훗날 소실되었다.

다음은 경명에 ‘방광/대방광’이 포함된 현존하는 경전들의 제목들이다.

No. 1489. 『淸淨毘尼方廣經』 구마라집 역, 5세기 초

No. 278. 『大方廣佛華嚴經』 불타발타라 역, 420년.

No. 821. 『大方廣如來祕藏經』 익명의 역자, 세 번째 진(秦) 왕조(351-431년)로 추정

No. 311. 『大方廣三戒經』 담무참 역, 북량(北凉) 왕조(401-439년)

No. 410. 『大方廣十輪經』 익명의 저자, 북량 왕조(401-439년)로 추정

No. 353. 『勝鬘師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 구나발타라 역, 송 왕조(420-479년)

No. 462. 『大方廣寶篋經』 구나발타라 역, 송 왕조(420-479년)

No. 308. 『大方廣菩薩十地經』 길가야(吉迦夜, \**Kimkārya*?) 역 (fl. 472년 경)

No. 275. 『大乘方廣總持經』 비니다류지 역, 582년

No. 187. 『方廣大莊嚴經』 지바하라 역

No. 295. 「大方廣佛華嚴經入法界品」 지바하라 역

No. 836. 『大方廣師子吼經』 지바하라 역, 680년 역

No. 1181. 『大方廣菩薩藏經中文殊師利根本一字陀羅尼經』 보사유(寶思

惟, \*Mañicinta(na)?, 702년

No. 279. 『大方廣佛華嚴經』 실차난다(實叉難陀, Śikṣānanda, fl. 695-710년) 역

No. 298. 『大方廣普賢所說經』 실차난타 역

No. 301. 『大方廣如來不思議境界經』 실차난타 역

No. 304. 『大方廣入如來智德不思議經』 실차난타 역

No. 300. 「大方廣華嚴經不思議佛境界分」 제운반야(提雲般若, Devaprajñā, Devendraprajñā, fl. 689?-741?년) 역

No. 306. 『大方廣佛花嚴經修慈分』 제운반야 역

No. 667. 『大方廣如來藏經』 불공(不空, Amoghavajra, 705-774년) 역

No. 1019. 「大方廣佛華嚴經入法界品四十二字觀門」 불공 역

No. 1101. 『大方廣曼殊室利經』 불공 역

No. 1215. 「方廣曼殊室利菩薩華嚴本教閻曼德迦忿怒王眞言大威德儀軌品」 익명의 역자 혹은 불공 역

No. 1216. 「大方廣曼殊室利童眞菩薩華嚴本教讚閻曼德迦忿怒王眞言阿毘遮迦儀軌品」 익명의 역자 혹은 불공 역

No. 293. 『大方廣佛華嚴經』 반야(般若, Prajñā, fl. 800년 경) 역

No. 1191. 『大方廣菩薩藏文殊師利根本儀軌經』 천식재(天息災) 일명 법현(法賢) 역, fl. 980-1000년

No. 299. 『大方廣總持寶光明經』 법천(法天) 일명 법현 (fl. 973-1001/1002년) 역

No. 346. 『佛說大方廣善巧方便經』 시호(施護, Dānapāla)(-1017/1018년) 역

No. 844. 「佛說大方廣未曾有經善巧方便品」 시호(-1017/1018년) 역

No. 438. 『佛說大乘大方廣佛冠經』 법호(法護, Dharmapāla)(963-1058/1059년) 역

따라서 5세기 초반부터 11세기 걸쳐 30권의 ‘*vaipulya- /mahāvaipulya-* 경전’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제목들은 화엄경군에 있는 것들과 더불어 금강승(*Vajrayāna*) 경전에서 자주 사용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이들과는 별개로, 7세기에 ‘(*mahā*)*vaitulya*’가 소실된 반면에, 30편의 ‘(*mahā*)*vaitulya-*경전’ 중 21편이 7세기 이후에 등장할 만큼 ‘(*mahā*)*vaipulya*’는 지속적으로 좀 더 성행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앞서 보았듯이 많은 경전의 제목들이 전자에서 후자로 대체되었다.

다음은 경명에 대승이 포함된 현존하는 경전들 제목들이다.

No. 348. 『{大乘}方等要慧經』 일명 『方等慧經』, 실수로 역자가 안세고에 귀속됨. 지검, 축법호 혹은 그들과 동시대인의 역으로 추측. 추정컨대 ‘대승’이 후대에 경명에 추가되었을 것이다. (Ⅷ2 참고)

No. 351. 『摩訶衍寶嚴經』 익명의 역자, 진(晉) 왕조(265-420년) 시대로 추정, 5년 초로 추정

No. 566. 『大乘瓔珞莊嚴經』 일명 『樂瓔珞莊嚴方便經』 담마야사(曇摩耶舍, Dharmayaśa, fl. 405년 이후)

No. 310-38. 「大乘方便會」 일명 『大乘方便經』 축난제(竺難提, fl. 419년 이후)

No. 158. 『大乘悲分陀利經』 익명의 역자, 진(秦) 왕조(351-431년)로 추정

No. 310-9. 『十法經』 일명 「大乘十法會」 불타선다, 539년.

No. 478. 『大乘頂王經』 율과수나, 538-541년

No. 659. 『大乘寶雲經』 만다라선(曼陀羅仙, \*Maṇḍalasena)과 승가바라(僧伽婆羅, \*Saṅghabhara?), 양(梁) 왕조 시대(502-557년)

No. 314. 『佛說大乘十法經』 승가바라, 양(梁) 왕조(502-557년)

No. 673. 『大乘同性經』 사나야사, 570년

No. 275. 『大乘方廣總持經』 비니다류지, 582년

No. 158. 『大乘悲分陀利經』, No.1493. 『大乘三聚懺悔經』 둘 모두 사나 굴다(523-601년) 역

No. 411. 『大乘大集地藏十輪經』 현장(玄奘, 600/602-664년) 역

No. 347. 『大乘顯識經』, No. 661. 『大乘百福相經』, No.662. 『大乘百福莊嚴相經』; No.674. 『證契大乘經』, No. 681. 『大乘密嚴經』 No.772. 『大乘四法經』, No.829. 『大乘離文字普光明藏經』, No.830. 『大乘遍照光明藏無字法門經』 모두 지바하라 역

No. 467. 『大乘伽耶山頂經』, No.568. 『有德女所問大乘經』, No. 1130. 『大乘金剛髻珠菩薩修行分』 모두 보리루지 역, 693년 경.

No. 672. 『大乘入楞伽經』, No. 774. 『大乘四法經』 둘 다 실차난타(fl. 695-710년) 역

No. 577. 『大乘流轉諸有經』 의정(義淨, 635-713년) 역

No. 694. 『大乘造像功德經』 제운반야(提雲般若, Devaprajñā, Devendraprajñā, fl. 689?-741?년) 역

No. 682. 『大乘密嚴經』, No. 710. 『慈氏菩薩所說大乘緣生稻籊喻經』, No. 1177A. 『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教王經』, No. 1215. 『大乘方廣曼殊室利菩薩華嚴本教閻曼德迦忿怒王眞言大威德儀軌品』, No.1253. 『大吉祥天女十二契一百八名無垢大乘經』 모두 불공(705-774년) 역

No. 159. 『大乘本生心地觀經』, No.261. 『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 반야(般若, Prajña, fl. 800년 경) 역

No. 936 『大乘無量壽經』 일명 『無量壽宗要經』 법성(法成, 8세기-9세기 초중반)

No. 363. 『大乘無量壽莊嚴經』, No. 472. 『大乘善見變化文殊師利問法經』, No. 473. 『妙吉祥菩薩所問大乘法螺經』, No. 939. 『大乘觀想曼拏羅淨諸惡趣經』, No. 1050. 『大乘莊嚴寶王經』, No. 1168A. 『大乘八大曼拏羅經』 모두 천식재(天息災) 일명 법현(法賢)(fl. 980-1000년) 역

No. 333. 『大乘日子王所問經』, No. 937. 『大乘聖無量壽決定光明王如來陀羅尼經』, No. 1128. 『最上大乘金剛大教寶王經』, No. 1164. 『大乘聖吉祥持世陀羅尼經』 모두 법천(法天) 일명 법현(法賢)(fl. 973-1001/1002년) 역

No. 316. 『大乘菩薩藏正法經』, No. 321. 『護國尊者所問大乘經』, No. 331. 『無畏授所問大乘經』, No. 437. 『大乘寶月童子問法經』, No. 711. 『大乘舍黎娑擔摩經』, No. 843. 『大乘不思議神通境界經』, No. 1497. 『大乘戒經』 모두 시호(-1017/1018년) 역

No. 652. 『大乘隨轉宣說諸法經』 소덕(紹德, fl. 11세기 초반) 역

No. 312. 『如來不思議祕密大乘經』, No.316. 『大乘菩薩藏正法經』, No. 359. 『大乘入諸佛境界智光明莊嚴經』, No. 438. 『大乘大方廣佛冠經』 모두 법호(法護, Dharmapāla)(963-1058/1059년) 역

No. 543. 『巨力長者所問大乘經』, No. 634. 『大乘智印經』 둘 다 지길상(智吉祥, Jñānaśrī, fl. 1053년 이후) 역

그러므로, ‘대승’이라는 이름을 포함한 60권의 경전이 5-11세기에 걸쳐 존재하고 있다. ‘대승’이라는 이름을 포함한 많은 경전들이 6세기에 등장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여기서 인용된 많은 역자들, 즉 사나야사(Jinayaśa 또는 \*Jñānayaśa), 사나굴다, 지마하리(Divākara), 실차난다(Śikṣānanda), 제운반야(Devaprajñā, 또는 Devendraprajñā), 불공금강(Amoghavajra), 반야(Prajñā), 천식재(天息災), 법천(法天) 그리고 시호(Dānapāla)가 ‘mahā-vaipulya-’와 ‘mahāyāna’ 경전을 모두 번역한 적이 있다는 것을 지적할 만하다. 두 종류의 제목이 나란히 번역되었음이 명백하다.

다음은 각 세기 별로 3개의 경전명의 사용 빈도를 정리한 표이다.

	<i>*vevulla vaitulya mahāvaitulya</i>	<i>vaipulya mahāvaipulya</i>	<i>mahāyāna</i>
2세기	2 <i>*vevulla</i>		
3-4세기	4		
5세기	3	8	4
6세기	6	1	8
7세기	2 (-616년)	3	12
8세기		13	9
9세기		1	3
10-11세기		5	24

이 표에서, 더 오래된 경전명인 ‘(mahā)vaitulya’는 단지 7세기 초반까지만 사용되었고, 이에 반하여 좀 더 새로운 ‘(mahā)vaipulya’는 그 이후에도 성행했고, ‘mahāyāna’라는 경전명은 더욱 빈번하게 사용되었음이 명확하게 보인다.

## IX. Vaitulya의 어원과 의미

많은 설명들이 존재하지만<sup>52)</sup>, 빨리어 ‘vedalla’, ‘vetulla’, ‘vetulya’, 불교산스크리트어 ‘vaitulya’, ‘vaipulya’, ‘vaidalya’, 옛 코탄어 ‘vittūlya’의 어원과 의미는 여전히 모호하다.<sup>53)</sup>

52) E.g. Burnouf 1852: 754; Wogihara 1938: 406-412; Bailey 1955, 20; Maeda 1964: 389f.; Norman 1978 = Norman CP II 44f.; ibid. 1983: 16, n. 8; Karashima 1992: 278 (on 63b-5); von Hinüber 1994: 134f. = 2009, 172f.; Anālayo 2012: 61, n. 54; Skilling 2013: 84ff. (자세한 참고문헌과 함께). 다음은 여러 학자들이 추정하는 vedalla의 어원이다: veda + lla (= lya) (Buddhaghosa, Kaccāyana); veda + lla-suffix (Wogihara); vedalla < vaidarya < vi-√dal (Burnouf); vedalla < veda-ariya (PTSD); vedalla < vaidārya < vi-√īṛ (Jayawickrama 1962: 102, n. 31.9).

마에다 에가쿠(前田惠學)는 팔리어와 한역 자료들(1964, 390ff.)에서 ‘vedalla’와 ‘vaipulya’의 의미에 대한 관습적인 해석을 철저히 고찰하고, 그것들을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1) 앞으로 살펴 볼, 붓다고사(Buddhaghosa)의 해석, (2) 『大毘婆沙論』(*Mahāvibhāṣā*), 『成實論』(\**Satyasiddhiśāstra* 혹은 \**Tattvasiddhi*), 그리고 『入大乘論』(\**Mahāyānāvātāra*)에서 ‘vaipulya’를 광범위하게 상세한 경전으로 해석하는 것, (3) 『대지도론』(\**Mahāprajñāpāramitāsāstra*)과 『대승열반경』(\**Mahāparinirvāṇa-mahāsūtra*)과 같은 대승 문헌에서 ‘vaipulya’를 ‘mahāyāna-경전’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마에다는 붓다고사의 해석이 (2), (3)보다 더 오래된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는데 필자도 여기에 동의한다.

붓다고사(5세기)는 ‘vedalla’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모든 경들은 지혜와 환희의 반복된 증득에 따라 설교하도록 요구받는다, 예를 들어 *Cullavedalla*, *Mahāvedalla*, *Sammādiṭṭhi*, *Sakkapañha*, *Saṅkhārabhājanīya*, *Mahāpuṇṇama Sutta* 등은 *vedalla*라고 알아야 한다.<sup>54)</sup>

53) Norman (CP II 44)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Vaitulya*와 *Vaipulya*는 틀림없이 프라크리트 *ve(y)ulla*와 *vevulla*로부터의 역성어(back-formation)일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y/-v-의 반모음의 자음 변화를 지닌 같은 단어의 단순한 이체자였을 것이다. 반면에 어느 쪽이라도, -t- 또는 -p- 형태의 어떤 것도 역사적으로 맞다고 할 수 없다.” von Hinüber (1994: 134f. = 2009: 172f.) 또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er Sinn des letzten Wortes (9) vedalla- bleibt ganz dunkel. Im Anschluß an Sp 29,1 denkt Aggavaṃsa an eine Verbindung mit veda-. Unmöglich ist diese Analyse als veda-lla- nicht, da -lla-Suffixe durchaus zur ältesten Sprache des Buddhismus zählen. Wenn die Sanskrit-Entsprechung vaipulya-, die in Mppś V (p. 2301) nur durch den Hinweis auf die Aussprache des Wortes und auf die Titel einiger vaipulya-sūtras erklärt wird, auf dasselbe Wort wie vedalla- zurückgeht, müßte \*veyalla- zugrundeliegen. Für die Aufhellung der Bedeutung des Wortes ist das wenig hilfreich.”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어떤 사람 갑이 질문을 하고, 을이 답변한 뒤, 갑이 답변에 만족감을 느끼고 더 질문을 하면, 을이 다시 그에 대해 대답을 한다는 것이다.<sup>55)</sup> 마에다는 붓다고사가 ‘vedalla’ 장르의 예로 언급한 경전들에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음을 증명한다.

- (1) 제자들 간이나 붓다와 제자 또는 제석천(Sakka) 사이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랫사람이 질문을 하고, 윗사람이 대답한다.
- (2) 몇 개의 인용된 예시들 중, ‘veyyākaraṇa’라는 용어가 나온다. 이는 이 장르가 또 다른 다양한 장르인 ‘veyyākaraṇa’(설명)임을 보여준다.
- (3) ‘vedalla’와 ‘veyyākaraṇa’를 다른 장르와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면모는 다음과 같은 정형구의 반복적인 등장이다. *sādh’ ayye\** (혹은 *bhante* 등.) (B) *ti kho* A (nom.) B (gen.) *bhāsitaṃ abhinanditvā anumoditvā* B (acc.) *uttariṃ pañhaṃ apucchi*. (B가 말한 것에 환호하고 흔쾌히 받아들이며 “훌륭합니다! 오 B 존자시여!”라 말한 뒤, A는 B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답을 계속한다.
- (4) 질문의 내용은 다양하나 주로 불교 교리와 관련된다.

54) Cf. Jayawickrama 1962: 26. Sp 28.27ff.: *Cūḷavedalla-Mahāvedalla-Sammādiṭṭhi-Sakkapañha-Saṅkhārabhājanīya-Mahāpunṇamasuttādaya sabbe pi vedaṃ ca tuṭṭhiṃ ca laddhā laddhāpucchitasuttanta vedallaṃ ti veditabbaṃ*. \**Dharmadinnāsūtra* (『法樂比丘尼經』, MĀ, no. 210)와 \**Mahākauṣṭhīla-sūtra* (『大拘絺羅經』, MĀ, no. 211)라는 전혀 다른 제목의 한역과 대응하는 *Cūḷavedalla* (MN, no. 44)와 *Mahāvedalla* (MN, no. 43)라는 경명은 아마도 후대의 재명명일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 (cf. Anālayo 2011: 268-286; Chung and Fukita 2011: 176f.; Anālayo 2012: 60f.; Schmithausen 2014: 97, n. 389; Honjō 2014: 74, 657, 889.) 아래에서 보겠지만, *Cūḷavedalla*과 *Mahāvedalla*는 아마도 각각 ‘작은 특이한(경전)’과 ‘큰 특이한(경전)’을 의미할 것이다.

55) Cf. Wogihara 1938: 408f.; Maeda 1964: 391; Ui 1965: 161.

붓다고사를 따라 마에다는 “‘vedalla’는 붓다 또는 그의 훌륭한 제자들 중 누군가와 같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주요 불교 교리에 관한 반복된 문답으로 이루어진 장르의 경전들로 정의할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sup>56)</sup> 마에다에 따르면, 이런 형식의 경전은 매우 드물지만 다음이 이에 속한다. Sn III. 6 *Sabhiyasutta* = *Mahāvastu* III 389-401 = 『불본행집경』 T. 3, no. 190, 833a1837c20; AN II 177-179 = 한역 『중아함경』 no. 172, T. 1, no. 26, 709a-c = 『의경(意經)』, T. 1, no. 82이다. MN, no. 112 *Cabbisodhanasutta* = 한역 『중아함경』, T.1, no. 26, 732a~734a도 이 장르의 한 종류이다.

필자는 마에다가 붓다고사의 정의를 다른 해석들보다 오래된 것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한다.

빨리어 정전(正典)에서, 아홉 장르의 경전들 중 하나의 경명을 제외하면, ‘vedalla’라는 단어는 드물게 등장한다. 이는 그 뜻과 어원을 파악하기 더욱 어렵게 만든다. 유일한 예외라 할 수 있는 것은 불교가 직면할 수 있는 미래의 위협에 대한 서술에 등장하는 ‘vedalla-kathā’의 형태이다(AN III 107.1-7).<sup>57)</sup>

다시, 미래에는 신체, 선행, 마음, 그리고 지혜가 성숙하지 못한 비구가 있을 것이다. 법에 관계된 이야기를 할 때, 문답을 할 때, 그들은 어두운 법으로 밀려내려갈 것이지만 그들은 모를 것이다. 비구들이여! 따라서 법의 붕괴를 통해 계율

56) Maeda 1964: 395f.

57) *puna ca param, bhikkhave, bhavissanti bhikkhū anāgatamaddhānaṃ abhāvitakāyā abhāvitasīlā abhāvitacittā abhāvitapaññā. te abhāvitakāyā samānā abhāvitasīlā abhāvitacittā abhāvitapaññā abhidhammakathaṃ vedallakathaṃ kathentā kaṇhadhammaṃ okkamamānā na bujjhissanti. iti kho, bhikkhave, dhammasandosaṃ vinayasandosa; vinayasandosaṃ dhammasandosa. idaṃ, bhikkhave, tatiyaṃ anāgatabhayaṃ etaraha asamuppannaṃ āyatīṃ samuppajjissati. taṃ vo paṭibujjhitaḥ paṭibujjhivā ca tassa pahānāya vāyamitabbaṃ.*

의 붕괴가 오고, 계율의 붕괴를 통해 법의 붕괴가 올 것이다. 이것은 미래에 닥칠 것이나 아직은 발생하지 않은 세 번째 미래의 위험이다. 너는 이를 알아야 하며,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AN[tr] 714).

이 묘사는 이미 마에다(Maeda 1964, 416f.)와 스킬링(Skilling 2013, 87f.)에 의해 연구된 것이다. 필자는 이 묘사가 “아비담마(Abhidhamma) 나 ‘vedalla’에 대해 그 원리를 배우지 않은 추측으로부터 일어나는 미혹, 즉 결국은 대승으로 알려질 과도한 존재론적 혹은 형이상학적 추측 또는 사상 혹은 수행의 경향에 대한 경고나 반응을 언급할 수 있다”는 스킬링의 주장에 동의한다. 여기서 ‘vedalla’는 분명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앙굿따라 니 까야』에는 앞서 인용한 묘사에 바로 이어 다음과 같은 위험을 묘사하고 있다 (AN III 107.14f.).<sup>58)</sup>

여래가 설하신 깊고 깊은 의미를 지니고 세상을 초월하고 공성과 연결된 이러한 담화들이 낭송되고 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에 귀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마음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의해 이야기되고 외부인들에 의해 작성되고, 단어와 문장이 아름다운, 시인들에 의해 작성된 단순한 시로서 담화들이 낭송될 때, 그들은 그것을 듣고 싶어 할 것이며, 그것에 귀기울 것이며,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 마음쓸 것이다. 그들은 그 가르침을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AN[tr] 714).

58) *ye te suttantā tathāgatabhāsītā gambhīrā gambhīrathā lokuttarā suññatāppaṭṭhapessanti, tesu bhāññanānesu na sussūsissanti, na sotaṃ odahissanti, na aññā cittaṃ upaṭṭhapessanti, na ca te dhamme uggahetabbaṃ pariyāpuṇitabbaṃ maññissanti. ye pana te suttantā kavikatā kāveyyā cittakkharā cittavyañjanā bāhirakā sāvakabhāsītā, tesu bhāññamānesu sussūsissanti, sotaṃ odahissanti, aññā cittaṃ upaṭṭhapessanti, te ca dhamme uggahetabbaṃ pariyāpuṇitabbaṃ maññissanti.*

‘시인들에 의해 작성된 시’, ‘단어와 문장이 아름다운’라는 구절은 대승 경전들에 대한 모욕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 상투적인 표현이다. 또한 제자들이 설하는 대승 경전들도 있다.

*Dīpavaṃsa*, *Mahāvāṃsa* 그리고 *Kathāvatthu-aṭṭhakathā*에서, ‘*vetulla/vetulya-vāda*’, ‘*-vādin*’ 그리고 ‘*vetullaka*’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이는 보하리카티사(Vohārikatissa, 214-236년) 왕의 재임기간에 일반적으로 대승 불교로 추정되는 비정통적인 교리를 소개한 무외산파(*Abhayagirivāsīn*)를 비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sup>59)</sup> 또한, ‘*vetulla-vādin*’의 정전을 의미하는 ‘*vetulla-piṭaka*’라는 단어는 붓다고사의 『상웃따 니까야』(*Samyuttanikāya* II 201)에 대한 주석인 *Sāratthapakāsīnī*에 등장한다.

따라서, ‘*vedalla-kathā*’와 ‘*vetulla/vetulya*’에서 ‘*vedalla*’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앞서 보았듯, ‘방광’이 5세기에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반면, ‘\**vevulla*’와 ‘방등’이라는 단어는 2세기 이후부터 한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편, ‘*vaidalya*’의 형태는 무착(395-470년 경)의<sup>60)</sup> 『아비달마집론』(*Abhidharmasamuccaya*)에서<sup>61)</sup>, ‘\**Sarvavaidalyasamgraha-nāma-mahāyānasūtra*’의 경전명의

59) *Dīpavaṃsa* 22.45 *Mahāvāṃsa* 33.111: *vetullavādino bhikkhū, abhayagirinivāsino / gāhayitvāsaṭṭhimatte, jinasāsanakaṇṭake.*; Cf. Skilling 2013: 88 “*Vetullavāda*에서의 *Vetulla*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 혹은 이론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사용되는데, 이는 기원전 3세기부터 2세기 이후 발생한 교리적인 논쟁과 관련된다. *Vetulla*를 사용하는 것은 스리랑카와 사사나(*Sāsana*)의 역사에 한정되어 있다. 특히, 섬의 연대기(the CHRONICLE OF THE ISLAND [OF LANKA])와 대 연대기(the GREAT CHRONICLE)에서 그렇다. 그리고 논사(論事 THE POINTS OF DEBATE)에 대한 주석서들에 한정되어 있다.” 정론(正論)에서는 *vetulla(vedalla)*는 대승이다. *Mahāvāṃsa*에 의하면 Vohārikatissa (214-236)왕의 시대에 스리랑카에 왔다고 한다. *Vetullapiṭaka*에 관해서는 *Sāratthapakāsīnī*가 기록하고 있다. Endo forthcoming 128 참조.

60) 그러나, 이러한 귀속은 의심된다: cf. Bayer 2010: 37.

61) 무착의 『아비달마집론』에 대한 \*Jinaputra의 주석은 *vaidalya*라는 단어를 인용한다.

재구성된 형태 -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vaitulya*의 과도한 산스크리트적 표현이다 - 에서, 『번역명의대집』 1385에 있는 *Sarvavaidalya-saṃgrahaḥ*에만 등장한다. 또한, 스킬링(Skilling 2013, 90)이 지적한 대로, \**Buddhapīṭaka*의 티베트역(8세기 초반)에서, \**mahāyānavaidalyasūtra*라는 경명은 \**sūtrāntaprvicaya*와 *buddhapīṭaka*와 *duḥśīlanigraha*와 더불어 그 문헌의 별칭 중 하나로 나타난다. 그러나 쿠마라지바의 한역(5세기 초반)에는 오직 이 별칭만 빠져있다(T. 15, 653, 803b17f. 此經名爲佛藏(*buddhapīṭaka*), 亦名發起精進(?*vīrya*), 亦名降伏破戒(*duḥśīlanigraha*), 亦名選擇諸法(*dharmavicaya*?)). 따라서 ‘*vaidalya*’라는 형태는 비교적 최근 것이며 드물다. 티베트에 보존되고 있는 나가르주나(2-3세기)의 \**Vaidalyaprakaraṇa*(2-3세기)의 ‘*vaidalya*’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

Abhidh-sam-bh 96.3 (§ 118). ‘*vaipulyam vaidalyam vaitulyam*’ ity ete mahāyānasya paryāyāḥ. 『아비달마잡집론』의 한역은 다음과 같다: T. 31, no. 1605, 686b16ff. 何等方廣? 謂菩薩藏相應言說。如名方廣(*vaipulyam*), 亦名廣破(*vaidalyam*), 亦名無比(*vaitulyam*)。爲何義故名爲方廣? 一切有情利益安樂所依處故。宣說廣大甚深法故。爲何義故名爲廣破(*vaidalyam*)? 以能廣破一切障故。爲何義故名爲無比? 無有諸法能比類故。현장의 한역에 기반한 프라단의 환범은 다음과 같다: Abhidh-sam 79.1-5. *vaipulyam katamat? bodhisattvapīṭakasamprayuktaṃ bhāṣitam. yad ucyate vaipulyam tad vaidalyam apy ucyate vaitulyam apy ucyate. kimarthaṃ vaipulyam ucyate? sarvasattvānāṃ hitasukhādhiṣṭhānataḥ udāragambhīradharmadeśanātaś ca. kimarthaṃ ucyate vaidalyam? sarvāvaraṇavidalanataḥ. kimarthaṃ ucyate vaitulyam? upamānadharmānāṃ tulanābhāvataḥ* (*vaipulya*란 무엇인가. 보살장에 포함된 이야기이다. 왜 *vaipulya*라고 불리는가. 일체중생의 행복의 토대이기 때문이고, 최고의 그리고 심오한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왜 *vaidalya*로 불리는가. 모든 장애(*sarvāvaraṇa*)를 파괴하기 (*vidalana*) 때문이다. 왜 *vaitulya*라고 불리는가. 비할 바(*tulanābhāva*)가 없기 때문이다.) Cf. T. 31, no. 1606, 743c21ff.; Abhidh-sam(E), III 610-611. 비슷한 구절이 중현(Saṃghabhadra, fl. 5c.)의 『순정리론』(*Nyāyānusāra*)에서도 발견된다: T. 29, no. 1562, 595a22-26. 言方廣(*vaipulya*)者, 謂以正理廣辯諸法。以一切法性相眾多, 非廣言詞不能辯故 亦名廣破(*vaidalya*)。由此廣言能破極堅無智闇故。或名無比(*vaitulya*)。由此廣言理趣幽博餘無比故。有說此廣辯大菩提資糧。(≡ T. 29, no. 1563, 892a2-6).

‘*vaidalya*’와는 무관하다.<sup>62)</sup>

더 오래된 형태인 ‘\**vevulla/veulla, vaitulya*’, 간다리어 ‘*vehula*’ 그리고 옛 코탄어 ‘*vittūlya*’ 모두는 ‘*vaipulya*’와 ‘*vaidalya*’의 경우 이차적인 형태임에 반해 ‘*vaitulya*’가 좀 더 원형의 형태임을 암시한다.

나는 이러한 이형들 가운데 가장 원형은 ‘\**vedulla*’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vaitulya*(> *vetulla*<sup>63)</sup>> \**vedulla*<sup>64)</sup>’에 상응하는 중세 인도어 형태로서, ‘같은 종류’(*tulya*, MW, s.v.)가 ‘아닌’(*vi*), 즉 ‘비정상적인, 특이한’을 뜻했을 것이다. 반드시 부처와 제자 사이가 아니라 오히려 두 제자 간에 이루어지는 반복되는 문답을 담은 경전은 아마도 ‘\**vedulla*’라고 이름 붙여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정상적이고, 특이했기’ 때문이다. 이 형태는 ‘*vidala*’(분리)와 연계되어, 팔리어 전통에서 ‘\**vedulla*’로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비정상적’인 경전의 명칭과도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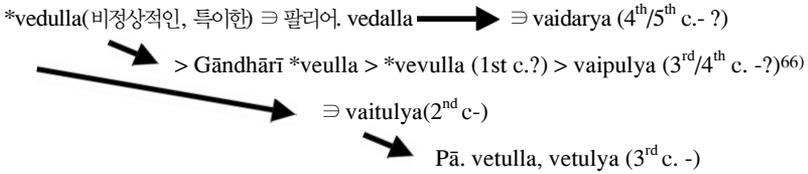
한편, 인도 북서부 지역에서 ‘\**vedulla*’는 간다리어 ‘\**veulla*’로 바뀌었을 것인데, 이로부터 *v*를 [모음] 연성을 연결해주는 자음으로 사용하면서

62) 용수로부터 150년 후에 성립한 『입능가경』에는, 인도 남부의 *Vedāṭī*에 *Nāga*라는 훌륭한 비구가 나타나서, 유(有)와 무(無)의 사견(邪見)을 논파하고, 무상(無上)의 대승을 현양할 것이고, 그리고 보살의 환희지에 머물고, 안락국(安樂國, *Sukhāvātī*)에 왕생할 것이라는 구절이 있다 (Lāv 286, ch. 10, vs. 164-166; T.16, no. 671, 569a22-27). 이와 관련해, 라자가하(*Rājagaha*)를 둘러싸고 있는 5개의 산 중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인 *Vepulla*(팔리어)가 『십지경』(*Daśa-bh[K]* 201.8)에서 *Vaipulya* (cf. BHSD, s.v.), *Vaidalya* (cf. BHSD, s.v.) 또는 *Vaidūrya*로 산스크리트어화 했다는 것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63) 팔리어에서 -t- > -d- 에 관해서는 cf. Geiger § 38.3. *udāhu* = Skt. *utāho*; *niyyādeti*, *paṭiyādeti* = Skt. *yātayati*; *pasada* = Skt. *prṣata*; *saṃghādisesa* = *saṃgha* + *atiśeṣa*; Lüders 1954 § 96. *uppāda* = Skt. *utpāta*, § 98. *ruda* = *ruta*; von Hinüber 2001: § 189 *surada* = Skt. *surata*; 또한 Hinüber 2001: § 177 참조.

64) 오기하라(1938: 411)는 爲頭離(T. 25, no. 1509, 246c27; EH. *vjwei dou ljei* > MC. *jwe dāu lje*)가 \**vedulla*의 번역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그것의 원형은 추측컨대 \**vedulya* 또는 \**vaidulya*일 것이다. 라모프는 그것을 *vaipulya*로 잘못 제시했다(Mpp§ III 1622).

‘\*vevulla’<sup>65</sup>)라는 형태가 되었을 것이다. 훨씬 후대에, 중세 인도어 경전들이 산스크리트어로 변환된 3세기경 이후, ‘\*vedulla’나 ‘\*veulla’도 그 본래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 ‘vaitulya’로 산스크리트어화 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훗날, 즉 한역에서 5세기에 방광이 처음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4세기경에, ‘vaipulya’라는 새로운 형태가 간다리어 ‘\*veulla’나 ‘\*vevulla’로부터 만들어졌을 것이다.



아마도 ‘\*vevulla’, ‘vaitulya’라는 경명을 포함한 새로운 경전을 작성했던 사람들은 그 용어들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로 여겼을 것이다. 예를 들면, 『아비달마집론』에서 그 용어를 ‘필적할데 없는, 비할데 없는’으로 정의하는 것과 같다.

왜 ‘vaitulya’가 그와 같이 말해지는가? 그것은 비교할 수 있는 것들과 비교될 수 없기 때문이다.<sup>67)</sup>

65) vedulla로부터 (\*veulla를 통해) vevulla까지의 변화를 위해서, cf. Karashima 1993: 19, § 2.3.7. 布和 (pwo- γwâ \*Pova) = Skt, Pā. Potana, Pā. Pota; Pkt. Poyaṇa; ib. § 2.3.8. 鳴婆提 (?wo bwâ diei \*Ovade) = Skt. Avadata, Pā. Odāta; Skt. Jeta > Kho. Jīva; Skt. udāra > Kho. uvāra; Skt. lokadhātu > Kho. lovadāva.

66) Cf. Gā. vehulla (written as vehula) < \*veulla < \*vevulla < vaipulya; Nasim Khan 81.12: /// aṇātara[ha]ṇae ◦ vurdhie vehulae ◦ aṣamoṣae (i.e. \*anantaradhānāya vṛddhaye vaipulyāya asaṃmoṣāya).

67) 각주 61 참고

새로이 만들어진 형태 ‘*vaipulya*’는 보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즉 ‘성숙, 풍부함, 많음, 가득참’이다. 따라서 ‘*vaitulya*’와 ‘*vaipulya*’는 새롭게 작성된 경전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고, 그 경전은 후에 ‘대승 경전’이라고 불렸다. 저자들은 그들 자신이 정통 경전들에서 발견되지 않는 내용과 형태를 가진 독특한 경전들을 편찬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또한 ‘(*mahā*)*vaitulya*’ 경전의 대부분이 부처와 제자, 혹은 제자들 사이의 문답으로 구성되어있다는 것을 주목해야한다. ‘*paripṛcchā*-유형’의 경전뿐 아니라 『팔천송반야』와 『법화경』도 문답을 포함한다. 이 형태는 ‘*vedalla*-경전’에 대한 붓다고사의 정의와 일치한다.

앞서 보았듯이, ‘*vaitulya*’라고 이름 붙여진 많은 경전들은 후대에 ‘*vaipulya*’ 또는 ‘대승’이라고 다시 이름이 붙여졌다. 지금은 산스크리트 경전들과 티베트역 중 소위 ‘대승 경전’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대부분은 그와 같이 이름이 붙여졌지만, 이러한 경명들은 후대 재명명의 결과이다. 이미 주목했듯이, 경전들에 대한 명칭 ‘대승’은 대략 400년 경에 처음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쿠마라지바는 406년에 ‘(*mahā*)*vaitulya*’를 ‘대승경’으로 번역하였다. 이것은 이러한 경전들의 ‘대승’이라는 경명이 4세기에는 인도 북쪽 혹은/그리고 북서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반야에 대한 용수의 주석인 『대지도론』으로부터 다음의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지도론』에서 붓다의 가르침의 12 장르(十二分教)중 ‘*vaipulya*’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된다(T. 25, no.1509, 308a5ff.).

‘상술된 경전들’(*vaipulya*)은 대승의 명칭이다. 『반야바라밀』, 『육바라밀경』, 『화수경』(\**Padmahasta*, T. 16, no. 657), 『법화경』, 『불본기인연경』, 『운경』, 『법운경』, 『대운경』 등의 무수한 경전들은 (사람들이) 무상정등정각의 증득을 위한 목적으로 (설해졌던) 것이다. 따라서 이를 ‘*vaipulya*’라고 부른다.<sup>68)</sup>

『대지도론』의 이 부분은 아마도 용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쿠마라지바 그 자신에 의해 작성이 되었을 것이다.<sup>69)</sup>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쿠마라지바 시대까지 ‘vaitulya-경전’과 ‘vaipulya-경전’은 모두 ‘mahāyāna-경전’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소위 ‘대승’ 경의 초기 편찬자들이 그들의 경전들을 ‘*vevulla/vaitulya/vaipulya*’(cf. 빨리어 *vedalla*, *vetulla*, *vetulya*, 불교범어 *vaidalya*, 간다리어 *vehula*)로 명명했고, 후대에서야 이 경명들이 ‘*mahāyānasūtra*’로 바뀌었다고 추정한다. 또한 『반야바라밀』과 같은 다양한 경전들처럼 몇몇 대승 경전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불려지지 않는 것도 있다.

## X. 누가 *vaitulya* 경전들을 편찬했는가? - 대중부 (*Mahāsāṃghika*) 그리고 *vaitulya*-/*vaipulya*-/ *mahāyāna*- 경전들

주로 414-426년에 담무참, 585년에 나련제야사에 의해 한역되고, 승취에 의해 586년 하나의 모음집으로 편찬된 『대방등대집경』(\**Mahāvaitulya-Mahāsannipāta*)이라는 ‘*vaitulya*’ 경전들의 모음집에서 ‘대승’이라는 용

68) 廣經者名摩訶衍, 所謂『般若波羅蜜經』, 『六波羅蜜經』, 『華手(←首)經』, 『法華經』, 『佛本起因緣經』, 『雲經』, 『法雲經』, 『大雲經』. 如是等無量阿僧祇諸經, 為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故說. 毘佛略(呂夜反). Cf. 『釋軌論』에서 세친은 12분교 내의 방광(*vaipulya*)을 대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친은 대승의 특징으로서 7종 대성(大性)을 말한다. Horiuchi 2009, 27f. 참조.

69) 그러나 이 부분은 역자 쿠마라지바에 의해 추가되었을 수도 있다. Hikata 1958: LVf. 참조. 라트나발리(*Ratnāvalī*)를 제외하고 용수는 대승(*mahāyāna*)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cf. Warder 1973; Fronsdal 1998, 96: n. 7. 라트나발리를 용수의 저작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대승(*mahāyāna*)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는 점에서, 몇몇 학자들에 의해 의심받지만 (Fronsdal *op. cit.*), Walser는 그의 저작이라고 옹호한다: cf. Walser 2005: 27 1ff

어는 198번 나타나고 매우 찬양된다. 또한 이 모음집에서 몇몇 경전들은 ‘mahāyāna-경(大乘經)<sup>70)</sup>이라고 불리는데, 그 경전들은 분명히 ‘vaitulya-점-mahāyāna-경전’이다. 이 모음집에서 ‘vaitulya-경전’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죄는 ‘다섯 가지 중죄(五逆罪)’ 즉, 누군가의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성자를 죽이는 것, 부처님의 몸에 피가 나게 하는 것, 승가의 불화를 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sup>71)</sup> 따라서, 이러한 경전들을 붓다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대항자들이 있었던 것은 명백하다.

담무참에 의해 번역된 『대방등대집경』의 열번째 경전인 「허공목분」(虛空目分)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문장들이 발견되는데, 이는 ‘vaitulya-경전’과 특정 학파의 관계를 드러낸다.

오! 교진여(Kaundinya)여! 나의 열반 후에 열 두 부류의 여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베껴 쓰고, 읽고, 암송하고, 왜곡된 방식으로 이들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못하게 선언할 제자들이 있을 것이다. 왜곡된 방식으로 가르침들을 설명하면서, 법(Dharma)의 바구니를 숨길 것이다. 그들은 법의 바구니를 감추기 때문에, 법장부(Dharmmagupta(ka))라고 불릴 것이다.

오! 교진여여! 나의 열반 후에, 열 두 부류의 여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베껴 쓸 나의 제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또한 비불교 문헌(外典)들을 읽고, 암송하고, 베껴 쓰고, 이에 대해 말할 것과, 삼세(과거, 현재, 미래)의 법과 내적이고 외적인 법의 존재에 대한 (교리)를 수용할 것이다. 그들은 이단들을 논박할 것이고, 논쟁에 능하고, 모든 종류의 생명들이 수계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

70) T.13, No.397, Dhk. 064c18. 何況取是大乘經典一品二品; T.13, No.397, Dhk. 212c13. 是大乘經不從他聞而能分別.

71) T.13, No.397, Dhk. 059a15. 見有誹謗方等經者不與同止; T.13, No.397, Dhk. 218c05. 惟除五逆謗方等經毀咎聖人; T.13, No.397, Dhk. 220a25. 除五逆罪謗方等經毀咎聖人犯四重禁; 219a5, 220b1; T.13, No.397, Dhk. 243c11. 若有衆生造作五逆謗方等經.

한다. 그들은 복잡한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있을 것이며, 때문에 그들은 설일체유부(*Sarvāstivādin*)라고 불릴 것이다.

오! 교진여여! 나의 열반 후에, 나의 제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여래의 열두 부류의 가르침들을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베껴 쓰고, 읽고, 암송할 것이다. 그들은 자아(*ātman* 또는 *pudgala*)도 받는 자도 없다고 말한다. 마치 시체와 같이 [그들은] 번뇌를 바꿀(轉)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들을 음광부(*Kāśyapīya*)라고 불릴 것이다.

오! 교진여여! 나의 열반 후에, 나의 제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여래의 열두 부류의 가르침들을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읽고, 암송하고 베껴 쓸 것이다. 그들은 땅의 특징(地相), 물과 불과 바람의 특징(水相·火相·風相), 허공과 인식의 특징(虛空相·識相)을 인정하지(? 作)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화지부(*Mahāsāsaka*)라고 불릴 것이다.

오! 교진여여! 나의 열반 후에, 나의 제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여래의 열두 부류의 가르침들을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읽고, 암송하고 베껴 쓸 것이다. 그들은 모두 마치 아이들처럼 자아(*ātman* 또는 *pudgala*)는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공의 특징(空相)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독자부(*Vātsīputranīya*)라고 불릴 것이다.

오! 교진여여! 나의 열반 후에, 나의 제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여래의 열두 부류의 가르침들을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읽고, 암송하고 베껴 쓸 것이다. 그들은 경전의 다섯 부류 모두를 폭넓게 읽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대중부(*Mahāsāṃghika*)로 불릴 것이다.<sup>72)</sup>

72) T. 13, no. 397, Dhk. 159a14ff. 橋陳如! 我涅槃後, 有諸弟子, 受持如來十二部經, 書寫, 讀誦, 顛倒解義, 顛倒宣說。以倒解說, 覆隱法藏。以覆法故, 名曇摩鞠多(*Dharmaguptaka*)。橋陳如! 我涅槃後, 我諸弟子受持如來十二部經, 讀誦, 書寫。而復讀誦, 書、說外典, 受有三世及以內外。破壞外道, 善解論義, 說一切性悉得受戒。凡所問難悉能答對, 是故名爲薩婆帝婆(*Sarvāstivādin*)。橋陳如! 我涅槃後, 我諸弟子受持如來十二

다른 학파는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반면에 대중부와 관한 묘사는 마지막에 나타나고 긍정적으로 기술된다. 따라서 이 ‘vaitulya-경전’의 편찬자가 대중부에 속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대중부와 『팔천송반야』, 『법화경』, 『삼매왕경』, 『열반경』, 그리고 『십지경』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은 이미 지적되었다.<sup>73)</sup> 그 중에서 앞에서 보았듯이 『반야경』과 『법화경』은 『대지도론』에서 ‘vaitulya-경전’으로 열거되었다. 『법화경』은 경전내에서 스스로를 ‘vaitulya/vaipulya’라고 부른다. 『대방등대집경』이라는 ‘vaitulya-경전’ 모음집 후반부의 역경가인 나련제야사는 557년에 『삼매왕경』을 번역했다. 한역은 『월등삼매경』(月燈三昧經)으로 이름 붙여졌는데, 그것은 또한 『방등대집월등경』(方等大集月燈經) (\*Mahāvaitulya-Mahāsannipāta-Candradīpa-sūtra)라고도 불린다. 따라서 이 경전은

---

部經，書寫讀誦。說無有我及以受者，轉諸煩惱，猶如死屍。是故名爲迦葉毘部(Kāśyapīya)。橋陳如！我涅槃後，我諸弟子受持如來十二部經，讀誦書寫，不作地相，水，火，風相，虛空，識相，是故名爲彌沙塞部(Mahīśāsaka)。橋陳如！我涅槃後，我諸弟子，受持如來十二部經，讀誦書寫，皆說有我，不說空相，猶如小兒。是故名爲婆蹉富羅(Vātsīputranīya)。橋陳如！我涅槃後，我諸弟子受持如來十二部經，讀誦書寫，廣博遍覽五部經書，是故名爲摩訶僧祇(Mahāsamghika)。이러한 문장들은 후대 한역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된다. e.g. T. 50, no. 2059 『高僧傳』, 403a22ff.; T. 54, no. 2131 『翻譯名義集』, 1113a29ff.; T. 55, no. 2145 『出三藏記集』, 20a22f., b23f., c23f., 21a12f., b3f. 등.

73) 대중부와 『팔천송반야』의 밀접한 관계에 관해서는 Kajiyama 1976: 103f.; Conze 1978: 1f.; Sander 2000: 100; Watanabe 1995: 46f., 165f., 170f.; ibid. 2009: 20f.; Nishimura 2006; Guang Xing 2005: 65-66; Skilling 2013b; Karashima 2012: III 560-561 = 2014: 85-86 참조; 『법화경』과 관련성에 관해서는 Iwai 2014, 34-39 참조; 『삼매왕경』과는 Skilling 2013a 참조; 『열반경』과는 Shimoda 1997, 254-256, 290, 381, 386-387, Hodge 2006. Kuno 1930, 특히 64, 70f., 130f. 참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십지경』이 Mahāvastu(Mvu I 63-193)의 10지에 기반한다고 추정한다. 『반야등론소』(Prajñāpradīpa-ṭīkā)에서, Avalokitavratā(觀誓, fl. 700년 경)는 이러한 두 개의 문헌이 연관되어 있다고 말한다. “...대승은 대중부 장(Piṭaka)의 Mahāvastu에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십지경』과 『반야바라밀』과 같은 특징적인 [대승 문헌]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 (Skilling 2013b, 202로부터 인용).

‘*vaitulya*-경전’ 중 하나이다.

『팔천송반야』와 『법화경』과 『삼매왕경』에서, 개아(*pudgala*) 개념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명시적으로 비판된다. 다양한 자료에 의하면, 동시에 다양한 부처가 공존한다는 것, 부처님이 일음(一音)으로 설법하는 것, 마술적으로 생겨난 붓다들(화신불)<sup>74</sup>에 의해 설법되는 것은 상좌부와 설일체유부 모두에게 비난받았다. 반면 대중부는 그것을 긍정했다. 사실 『논사』(論事)에 대한 주석은 마술적으로 만들어진 붓다(化身佛)에 의한 설법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Vetulyaka*’라고 불렸다고 말한다. 하지만 다양한 부처가 공존하고 부처님이 일음으로 설법하고 화신불이 설법하는 것은 대승 경전들의 보편적 특징이다.<sup>75</sup>

대중부와 대승의 밀접한 관계는 대승 승려들이 거주하고 있는 데바라자(*Devarāja*) 사원(天王精舍)이라고 불렸던 대승 사원에서 법현(法顯)이 대중부 계율 사본을 필사했다는 사실에 의해 설명된다. 법현이 기록한 것과 같이, 이 율장 사본은 그곳 승단의 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해 제타바나로부터 파

74) 『대지도론』에서 작자는 그가 주석한 반야 경전이 천억만 계승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반야 경전의 아주 작은 부분이며, 이것은 용왕과 이수라왕과 신들의 궁전에 보존되어있다고 말한다. 붓다로서 그 자신이 설법했을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은 무량하다. 摩訶衍甚多無量無限，如其中「般若波羅蜜品」，有二萬二千偈；「大般若品」，有十萬偈；諸龍王，阿修羅王，諸天宮中，有千億萬偈等。所以者何？此諸天，龍，神壽命長久，識念力強故。今此世人，壽命短促，識念力薄，「小般若波羅蜜品」尚不能讀，何況多者！諸餘大菩薩所知般若波羅蜜，無量無限。何以故？佛非但一身所說，無量世中或變化作無數身，是故所說無量。(756a29ff.)

75) 『법화경』과 대중부: 「견보탑품」에는 많은 붓다가 등장하지만, 다보불은 유골이고 다른 붓다가 화불이라면, 생불은 석존뿐이어서 문제는 없다. 그러나 사가라(*Sāgara*) 용왕의 딸이 남자로 변성하여 붓다가 된다. 유부는 ‘多世界一仏’(하나의 불국토에 붓다가 있을 동안은 다른 불국토에도 붓다의 출세를 인정하지 않는다) 입장에 서기 때문에 사가라 용왕의 딸이 성불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법화경』의 입장은 유부와 다르고, 대중부와 마찬가지로 ‘多世界多仏’이다. 『법화경』 성문성불론, 어린 아이의 작은 선행으로 성불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바사론』=유부가 비판하여 91집이 걸려 성불한 석존을 언급한다. IBK 61.1 (2012, 12). 359f. 참조.

탈리푸트라로 가져온 것이다. 이로부터 이 사원의 대승 승려들은 대중부에 속했고 따라서 데바자라 사원은 대중부-겸-대승사원이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법현이 이 사원의 재가자로부터 『열반경』(*Vaitulya-mahāparinirvāṇa-sūtra*)의 복사본을 받았다는 것 역시 중요하다.

파탈리푸트라에서 대중부와 대승의 밀접한 관계는 『성실론』(成實論)의 저자 하리바르만(Harivarman, 250~350년 경)의 전기에 나오는 다음의 설명에 의해 증명된다. ‘時有僧祇部僧住巴連弗邑，並遵奉大乘。云是五部之本’(당시, 파탈리푸트라에 살았던 대중부의 비구들은 모두 대승을 받들고 있었고, 이것이야말로 5부 니카야의 근본으로 말해졌다.)

## XI. 논자와 대중부와 대승경전

### XI-1. 대승경전을 인용한 논서

놀랍게도 대정장 26-29권의 비담부에는 ‘법화’라는 단어도, 경전명으로서의 ‘화엄’, ‘반야’도 나오지 않는다. 즉 유부 논서에는 대승경전이 아마 전혀 인용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에 대해 대승경전을 인용한 논서의 저자는 모두 대중부와 관계가 추정되는 비구들이다.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반야경』의 주석서인 『대지도론』에는, 『반야경』은 물론, 『법화경』이 22회나 인용되어 있다. 『대지도론』에는 한역자 쿠마라지바가 설명한 문장이 섞여있음은 틀림없지만, 대부분은 용수의 저술로 생각해야 한다. 용수와 대중부계 동산파(*Pūrvaśāila*)의 관계는 이미 지적되어 왔다.<sup>76)</sup> 필자도 용수가 대중부에 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sup>77)</sup> 그 근거

76) Cf. Mabbett 1998; Walser 2005: 88; Mitrikeski 2009.

는 다음과 같다. 용수는 대중부 안다카(*Andhaka*)파가 번성한 안다카 지방(*Andhaka/Āndhraka*)<sup>78)</sup>에서 활약했었다. 용수의 이름을 딴 나가르주나콘다(*Nāgārjunakoṇḍa*)부터, 대중부 또는 대중부계의 서산파(*Aparaśaila*)·동산파·다문부(*Bahuśrutīya*)의 3세기 비문이 11개, 화지부의 비문이 한 개, 분별설부의 비문이 2개 발견되고 있다.<sup>79)</sup> 압도적으로 대중부·대중부계가 이 지역에서 번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기세경』(*Lokānuvartanā-sūtra*)은 지루가참여 『내장백보경』(No. 17, no. 807)에 대응하고, 또 티베트역에는 대승경전으로 되어있다.<sup>80)</sup> 이미 지적했듯이<sup>81)</sup>, 이 경전은 부분적으로 대중부의 『대사』(Mvu I 167.15-170.10)와 일치하고, 대중부가 지은 경전으로 생각된다. 앞서 해리슨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용수의 『무비찬』(*Niraupamyastava*) 계송 17-20은 이 경전을 근거로 한다.<sup>82)</sup> 이것들로부터, 용수는 대중부의 경전에 밝았다고 여겨진다. 역시 용수에 저술로 된 『경집』(*Sūtrasamuccaya*)에도 많은 대승경전이 인용되었다.<sup>83)</sup> 그러나, 오늘날에는 용수의 저술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다.<sup>84)</sup>

찬드라키르티(*Candrakīrti*, 570-650 혹은 560-640년 경)도, 『명구론』(*Prasannapadā*), 『입중론』(*Madhyamakāvātāra*)과 『공칠십론주』

77) Cf. Walsler 2005: 88: ‘... Nāgārjuna probably lived in a *Pūrvaśailya*, *Aparaśailya*, or *Cāityaka* monastery during the time he wrote the *Ratnāvalī*.’ Mitrikeski (2009) 또한 용수와 *Pūrvaśaila*학파의 관계를 증명했다.

78) Cf. Tsukamoto 1980: 461-462.

79) Cf. Tsukamoto 1980: 500-502; IBInsc I 313-352.

80) Tib(Pk) 866, Tib(D) 200. ‘*phags pa ’Jig rten gyi rjes su ’thun par ’jug pa zhes bya ba theg pa chen po’i mdo* (\**ārya-Lokānuvartana nāma mahāyānasūtra*).

81) Takahara 1969; Shizutani 1974: 282-283, 315-318; Harrison 1982, 1995; Shimoda 1997: 254-256; Guang Xing 2006; Mitrikeski 2009: 155-157.

82) Tucci 1932: 318, 계송 19-20. Cf. Harrison 1982: 224; Mitrikeski 2009: 156-157.

83) Cf. Pāsādika 1989; Ichijima 1990: 16(271)-24(263).

84) Ichijima 2000: 289; Harrison 2007.

(*Śūnyatāsaptatīrṭti*)에서 『법화경』, 『반야경』, 『십지경』, 『삼매왕경』, 『보적경』, 『능가경』 등 대승경전을 인용한다.<sup>85)</sup> 한편 앞서의 『기세경』의 계송을 인용하고<sup>86)</sup>, 『입중론』에서는 그것을 동산파의 전적으로 말하고(MAv 134.1), 『명구론』에서는 『아함경』(*Āgamasūtra*)으로서 인용하고 있다(Prasp 548.5). 월칭은 그의 저작에서 유식설경량부·정량부·비바사사를 비판하고<sup>87)</sup>, 또 그 저작에는 대중부와 공통되는 생각이 보인다.<sup>88)</sup> 이로부터 찬드라 키르티는 대중부에 속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된다.

산티데바(fl. 685-763<sup>89)</sup>)의 『학집론』(*Śikṣāsamuccaya*)에는 『법화경』 『반야경』 등 다수의 대승경전이 인용되고 있다.<sup>90)</sup> 그는 문수보살을 신앙하고 있다고 말해진다.<sup>91)</sup> 『학집론』에는, 율문헌(律文獻)인 『비구잡송율』(*Bhikṣuprakīrṇaka*)이 부파명 없이 인용되고(*Śikṣ* 154: 17), 그것은 대중부·설출세부(*Lokottaravādin*)의 것과 일치한다.<sup>92)</sup> 한편, 설일체유부의 율을 인용할 때는 ‘설일체유부’(*Sarvāstivādin*, *Sarvāstivādaka*)라고 부파명을 기입한다. 그러므로 그는 대중부·설출세부의 승려였다고 추정된다.<sup>93)</sup>

디파카라쉬리즈나나(*Dīpaṅkaraśrījñāna*=*Atīśa*, 982-1054년)는 남벵골 출신으로, 대중부에서 출가하고, 1042년에 서티베트 구계로 옮겨서, 1054년 티베트에서 사망했다. 그는 『대경집』(*Mahāsūtrasamuccaya*) 중에서 다수의 대승경전을 포함한 83종의 경전을 인용하고 있다.<sup>94)</sup>

85) Cf. Prasp 625-629; MAV(tr.J) 6-7; Śsv(tr.G) 286-301.

86) Cf. Harrison 1982: 225-227; Shimoda 1997: 254-255; Śsv(tr.G) 41, 130, 주석 268.

87) E.g. Prasp 302-323.

88) Cf. YŚV(tr.F) 224, 주석 407.

89) Bca(tr) viii.

90) Śikṣ 367-371.

91) Bca(tr) viii, 191.

92) Ishida 1993: 2.

93) Enomoto 2004, 674, 주석. 51.

94) Mochizuki 2013, 729f.에 의하면, *Mahāsūtrasamuccaya*는 273곳에서 83개의 경전을 인용

이상과 같이, 대승경전을 많이 인용한 용수·찬드라키르티·산티데바·디팡카라쉬리즈나나는 모두 대중부계의 비구라고 생각된다.

## XI-2. 세친(世親) - ‘설일체유부로부터 타락한 *vaitulika*’

반면 세친은 유부출신이었지만, 대승경전의 주석을 썼다. 그러나 설일체유부의 논서인 『아비달마등론』(*Abhidharmadīpa, Dīpakāra* 저, 450-550년 경?)은 ‘*Vaitulika*’들을 비판한다.

설일체유부는 삼세가 있고, 세 종류의 향상한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 분별론자와 비유사(*Dārṣṭāntika*)는 현재만 있다고 생각한다. 도리에 맞지 않는 공성론자(*ayoga-sūnyatāvādin*)인 *Vaitulika*는 ‘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뿌드갈라논자는 뿌드갈라도 실유한다고 생각한다. …… 설일체유부만이 옳다. 비유사·*Vaitulika*·뿌드갈라논자는 이증(理証)이나 아함(阿含)에 의하지 않는 샷된 논자(邪論者)이다(*Abhidh-d 257.4ff.*).

‘*Vaitulika*’는 조건(緣)에 의해 생겨난 것은, 자성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일체법은 무어라고 믿고 있다(*Abhidh-d 276.5ff.*).

삼매력에 의해서 자유롭게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부처님은 자비를 가지기 때문에 반열반하지 않고, 대덕(大德)은 ‘*Vaitulika-sāstra*’를 사용하고 있지만 무

---

하고 있다. *Śikṣāsamuccaya*는 360곳에서 88개의 경전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인용하는 경전은 많지 않다. 따라서 전자는 후자의 재인용이 아니다.

시해야 한다(Abhidh-d 101.3ff.).

이상에서 공성론자인 ‘*Vaitulika*’가 설하는 내용은 확실히 『반야경』, 『삼매왕경』, 『법화경』, 『열반경』이 설한 내용이다. 『아비달마등론』은 설일체유부의 학자로서 『구사론』을 저술한 후 대승을 배우고, 대승경전의 주석서와 유식관계의 저작을 한 세친을 ‘설일체유부로부터 타락한 ‘*Vaitulika* (*Sarvāstivāda-vibhraṣṭi*{r}-*vaitulika*)’(Abhidh-d 282.1)로 폄훼하고 있다.<sup>95)</sup> 만약, 유부로부터 대승경전이 생겨났다면, 이러한 표현을 할 리가 없다. 유부출신이면서 유부의 교리를 비판하는 대중부에서 유래한 대승경전을 받드는 세친을 ‘낙오자’(전향자)로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유부와 대승경전이 본래 서로 수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유부가 대승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다음의 두 가지 점도 보여주고 있다. (1) 중앙아시아·실크로드북로에 있는 키질 등의 석굴 사원터로부터 나오는 범어사본 단편의 대부분은 유부의 불전으로 대승경전이 매우 적은 것, (2) 또 벽화에는 과거불·석가모니불·미륵을 주제로 한 것은 있지만, 간다라와 같이 다불(多佛)의 현현이나 『법화경』의 이불병좌(二佛並座)와 같은 대승경전을 주제로 한 벽화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실크로드 북로만이 아니라 인도본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추정된다. 유부와 대승은 적어도 어느 시점까지는 서로 수용하지 않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가면, 유부도 대승을 받아들인다. 한편 남방상좌부에도 무외산(*Abhayagiri*)파와 같은 대승사상을 가지고 대승상좌부와 같이 된 한 부파가 있었지만 후에 배제되었다.

95) Cf. Jaini 1958: 52f. = Jaini 2001: 187f.; Mitomo 2007: 208, 615.

## XII. 결론

결론적으로 나는 “대중부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경전들을 작성했고, 종종 그것들은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불교 교리에 대한 보수주의적 사상들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붓다의 경전으로서 ‘불규칙적’이지만 ‘비할데 없고 무적’이라는 의미에서 이 새로이 작성된 문헌을 ‘vedulla/vaitulya’라고 불렀다”고 추정한다. 이후에 이 문헌은 더욱 긍정적인 방식으로 ‘완전한 계발, 풍부함, 많음, 가득참’이라는 ‘vaipulya’로 불리게 되었다. 훨씬 후대에도 이들은 또한 ‘mahāyāna-경’이라고도 불리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경전들’을 편찬하고, 필사하고, 읽고, 암송하고, 선언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을 ‘대승불교도’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결국 대중부에 소속되었고, 따라서 ‘mahāyāna’라는 이름이 인도의 초기 명문들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훨씬 후대에, 대승경전과 교리가 훨씬 더 유명해졌을 때에야, 다른 학파의 구성원은 그것을 인정했고 또한 흡수했다. 따라서 9세기 또는 10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명문에서 다음의 표현들이 발견된다.

*pravara-mahājāna-jāyinaḥ Śākya-bhikṣor āryamūlasarvāstivādapaṛśadā-Vaṅga-viṣayika-sthavira-Dharmmamittrasya*<sup>96</sup>).

96) *Facets of Indian Culture: Gustav Roth Felicitation Volume*, p. 285.

### 약호 및 참고문헌

Abhidh-d = *Abhidharmadīpa with Vibhāṣāprabhāvṛtti*, critically edited with notes and introduction by Padmanabh S. Jaini, 2nd ed., Patna 1977: Kashi Prasad Jayaswal Research Institute (Tibetan Sanskrit Works Series, 4)

Abhidh-sam = *Abhidharma Samuccaya of Asanga, critically edited and studied by Pralhad Pradhan, Santiniketan 1950: Visva-Bharati (Visva-Bharati Studies, 12)*

Abhidh-sam(E) = *Abhidharmasamuccaya and Abhidharmasamuccaya-bhāṣya*, Bonzōkan Taikō (梵藏漢對校) E-text, ed. Yugagyō Sisō Kenkyūkai 瑜伽行思想研究会, Shiga, Japan, published in 3 vols. at <http://www.shiga-med.ac.jp/>.

Abhidh-sam-bh = *Abhidharmasamuccayabhāṣya*, deciphered and edited by Nathmal Tatia, Patna 1976: Kashi Prasad Jayaswal Research Institute (Tibetan Sanskrit Works Series, 17)

AN = *Anguttara-Nikāya*, ed. R. Morris, E. Hardy, 5 vols., London 1885~1900: PTS; vol. 6 (Indexes, by M. Hunt and C.A.F. Rhys Davids), London 1910 (PTS).

AN(tr) = *The Numerical Discourses of the Buddha: A Translation of the Anguttara Nikaya by Bhikkhu Bodhi*, Bristol 2012: The Pali Text Society (Pali Text Society Translation Seires, No. 56).

Anālayo

2011 *A Comparative Study of the Majjhima-nikāya*, Taipei: Dharma Drum Publishing, 2 vols. (Dharma Drum Buddhist

College Research Series, 3).

2012 *A Comparative Study of the Majjhima-nikāya*, Taipei: Dharma Drum Publishing Corp. (Dharma Drum Buddhist College Research Series, 3).

Apple, James

2004 “Twenty Varieties of the Saṃgha: A Typology of Noble Beings (Āryā) in Indo-Tibetan Scholasticism (part II).” *JIP* 32, 2-3(2004): 211-279.

2014 “The Irreversible Bodhisattva (avaivartika) in the Lotus sūtra and Avaivartikacakrasūtra.”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Oriental Philosophy*, no. 29: (59~81), 176~154.

ARIRIAB = Annua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Advanced Buddhology at Soka University.

AsP = *Aṣṭasāhasrikā Prajñāpāramitā*; = AsP(V)

AsP(R) = *Aṣṭasāhasrikā Prajñāpāramitā*, ed. Rajendralala Mitra, Calcutta 1887~1888: Royal Asiatic Society of Bengal (Bibliotheca Indica 110).

AsP(V) = *Aṣṭasāhasrikā Prajñāpāramitā with Haribhadra's Commentary called Āloka*, ed. P.L. Vaidya, Darbhanga: The Mithila Institute of Post-Graduate Studies and Research in Sanskrit Learning, 1960 (Buddhist Sanskrit Texts, no. 4).

AsP(W) = *the text of the Aṣṭasāhasrikā Prajñāpāramitā quoted in: Abhisamayālaṃkāra'ālokā Prajñāpāramitāvyākhyā: The Work of Haribhadra, together with the text commented on*, ed. U. Wogihara, Tokyo 1932: The Toyo Bunko; repr.: Tokyo 21973: Sankibō Busshorin.

Bailey, Harold Walter

1955 “Buddhist Sanskrit.” *Journal of 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1955): 13-24, with one plate.

1971 *Sad-dharma-puṇḍarīka-sūtra*, Canberra: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Faculty of Asian Studies (Occasional Paper 10).

Bayer, Achim

2010 *The Theory of Karman in the Abhidharmasamuccaya*, Tokyo: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Buddhist Studies of the International College for Postgraduate Buddhist Studies (Studia Philologica Buddhica, Monograph series 26).

Bca(tr) = *The Bodhicaryāvatāra: Śāntideva*, translated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by Kate Crosby and Andrew Skilton; with a general introduction by Paul Williams, Oxford 1998: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World’s Classics).

Bca-P = L. de La Vallée Poussin, *Bodhicaryāvatārapañjikā, Prajñākaramati’s Commentary to the Bodhicaryāvatāra of Śāntideva*, Bibliotheca Indica, nos. 983, 1031, 1090, 1126, 1139, 1305 and 1399, Calcutta. 1901-14.

Bhk(I) = *the first Bhāvanākrama*, in: *Giuseppe Tucci, Minor Buddhist Texts, part II*, Roma 1958: Istituto Italiano per il Medio ed Estremo Oriente (Serie orientale Roma 9, 2), 155-282; reprinted: *Minor Buddhist Texts*, parts one and two, Delhi et al. 1986: Motilal Banarsidass, 465-592.

Bhk(II) = *the second Bhāvanākrama*, Kiyotaka Goshima, *The Tibetan text of the second Bhāvanākrama*, Moriyama 守山 1983, Japan: in-house reproduction.

Bhk(III) = the third Bhāvanākrama, in Giuseppe Tucci, *Minor Buddhist Texts, part III, Third Bhāvanākrama*, Roma 1971: Istituto Italiano per il Medio ed Estremo Oriente (Serie orientale Roma 43).

BHS = a Buddhist Hybrid Sanskrit word, listed in BHSD

BHSD = Franklin Edgerton, *Buddhist Hybrid Sanskrit Dictionary*, New Haven, 1953: Yale University Press; repr. Delhi, 21970: Motilal Banarsidass.

BLSF = *The British Library Sanskrit Fragments: Buddhist Manuscripts from Central Asia*, editors-in-chief, Seishi Karashima and Klaus Wille, Tokyo, vol. I (2006), vol. II (2009):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Advanced Buddhology, Soka University.

Bongard-Levin, Gregory M. and M. I. Vorob'ëva-Desjatovskaja  
1985 *Pamjatniki Indijskoj Pis'mennosti iz Tsentral'noj Azii*, Vypusk 1, Moskva (Pamjatniki Pis'mennosti Vostoka LXXIII, 1; Bibliotheca Buddhica 33).

Burnouf, Eugène

1852(1925) *Le Lotus de la Bonne Loi. Traduit du sanskrit, accompagné d'un commentaire et de vingt et un mémoires relatifs au Bouddhisme*, tome 1. Traduction et notes; tome 2. Appendice (Mémoires annexes), Paris 1852: Imprimerie Nationale; Nouv. éd. avec une préface de Sylvain Lévi, Paris 1925: Adrien-Maisonneuve (Bibliothèque Orientale Tome IX); repr. 1973.

Chung, Jin-Il and Takamichi Fukita

2011 *A Survey of the Sanskrit Fragments Corresponding to the Chinese Madhyamāgama: Including References to Sanskrit*

*Parallels, Citations, Numerical Categories of Doctrinal Concepts, and Stock Phrases*, Tokyo: The Sankibo Press.

Coblin, Weldon South

1983 *A Handbook of Eastern Han Sound Glosses*, Hong Kong: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1991 *Studies in Old Northwest Chinese*,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Monograph Series Number 4, Berkeley.

1993 “BTD Revisited -- A Reconsideration of the Han Buddhist Transcriptional Dialect.” *Zhongyang Yanjiuyuan Lishi Yuyan Yanjiusuo Jikan*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63 (1993): 867-943.

Conze, Edward

1978 *The Prajñāpāramitā Literature*, 2nd ed., rev. and enl., Tokyo: The Reiyukai (Bibliographia Philologica Buddhica Series Maior, I).

Daśa-bh(K) = *Daśabhūmīśvaro nāma Mahāyānasūtra*, revised and edited by Ryūkō Kondō, Kyoto 1983: Rinsen Book Co. (Rinsen Buddhist Text Series II).

Dhk = Dharmakṣema 曇無讖 (ca. 385-433; fl. 412-433)

EH = reconstructions of the Eastern Han (25-220 C.E.) Chinese sound system, posited by Coblin 1983.

Endo, Toshiichi

forthcoming “The Sumaṅgalavilāsinī and the Dīgha-bhāṅakas”

Enomoto, Fumio 榎本文雄

2004 “‘Konponsetsuissaiubu’ no Tōjō” 「根本説一切有部」の登場 [Emergence of ‘Mūlasarvāstivādin’] *Indo Tetsugaku Bukkyō*

*Shisō Ronshū: Mikogami Eshō Kyōju Shōju Kinen Ronshū*  
インド哲学仏教思想論集: 神子上恵生教授頌寿記念論集, Kyoto  
京都, Nagatabunshōdō 永田文昌堂: 651-677.

Falk, Harry and Seishi Karashima

2012 “A first-century Prajñāpāramitā manuscript from Gandhāra –  
parivarta 1 (Text from the Split Collection 1).” *ARIRIAB* 15:  
19-61 + plates 5-7.

2013 “A first-century Prajñāpāramitā manuscript from Gandhāra –  
parivarta 5 (Text from the Split Collection 1).” *ARIRIAB* 16:  
97-169 + plates 52-53.

Fang, Yixin and Gao Lieguo 方一新, 高列過

2012 *Donghan Yiwei Fojing de Yuyanxue Kaobian Yanjiu* 東漢疑偽  
佛經的語言學考辨研究, Beijing: Renmin Wenxue Chubanshe  
人民文学出版社.

Fronsdal, Egil

1998 *The Dawn of the Bodhisattva Path: Studies in a Religious  
Ideal of Ancient Indian Buddhist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Earliest Extant Perfection of Wisdom Sutra*, Diss.  
Stanford; Ann Arbor, Mich.: UMI.

Gā = Gāndhārī

Geiger = *A Pāli Grammar* by Wilhelm Geiger, translated into English  
by Batakrihna Ghosh, revised and edited by K. R. Norman,  
Oxford 1994: The Pali Text Society.

GH = *Guxun Huizuan* 故訓匯纂, ed. Zong Fubang 宗福邦, Chen Shinao  
陳世鏡, Xiao Haibo 蕭海波, Beijing 2003 北京: 商務印書館.

Guang Xing 廣興

2005 *The Concept of the Buddha: Its Evolution from Early Buddhism to the Trikāya Theory*, New York, London: Routledge/Curzon, (Critical Studies in Buddhism).

2006 “The Lokānuvartana-sūtra 佛說內藏百寶經: 英訳.” *Journal of the Centre for Buddhist Studies Sri Lanka*, vol. 4 (2006): 312ff.

H6 = Readings of the Central Asian manuscript fragments of the *Saddharmapuṇḍarikāsūtra*, preserved at the India Office Library, romanised in Toda 1983: 299-317.

Harrison, Paul

1982 “Sanskrit Fragments of a Lokottaravādin Tradition,” in *Indological and Buddhist Studies, Volume in Honour of Professor J. W. de Jong on his Sixtieth Birthday*, ed. L. A. Hercus et al., Canberra 1982, 211~234.

1995 “Some Reflections on the Personality of the Buddha,” *Ōtani Gakuhō* 大谷學報 74.4: 1-28.

2007 “On Authors and Authorities: Reflections on Sūtras and Śāstras in Mahāyāna Buddhism”, in *Daijō Bukkyō no Kigen to Jittai ni kansuru Sōgōteki Kenkyū: Saikin no Kenkyūseika wo humaete* 大乘仏教の起源と実態に関する総合的研究: 最新の研究成果を踏まえて [A Comprehensive Study of the Origin and the Facts of Mahāyāna Buddhism: Taking into Account the Latest Study]. ed. Akira Saitō 斎藤明, Tokyo: Tokyo Daigaku Daigakuin Jinbun Shakai Kenkyūka 東京大学大学院人文社会系研究科], 26-45.

Hayashiya, Tomojirō 林屋友次郎

1941 *Kyōroku Kenkyū* 經録研究, Tokyo: Iwanami Shoten 岩波書店.

Hikata, Ryūshō 干潟龍祥

- 1958 *Suvikrāntavikrāmi-Paripṛcchā Prajñāpāramitā-Sūtra*, ed. Ryūshō Hikata, Fukuoka 1958: Kyusyu University; repr. Kyoto 1983: Rinsen Book Co. (Rinsen Buddhist Text Series III).

von Hinüber, Oskar

- 1994 “Die Neun Aṅgas – Einfrüher Versuch zur Einteilung buddhistischer Texte.” *Wiener Zeitschrift für die Kunde Südasiens*, Band XXXVIII (1994): 121-135 = 2009: 159-173.
- 2001 *Das ältere Mittelindisch im Überblick*, 2., erweiterte Auflage, Wien: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 2009 *Kleine Schriften*, hrsg. von Harry Falk und Walter Slaje, 2 Bde, Wiesbaden 2009: Harrassowitz (GSt 47).

Hodge, Stephan

- 2006 “On the Eschatology of the *Mahāparinirvāṇasūtra* and Related Matters”, Lecture held at University of London, SOAS, Spring 2006. <http://www.nirvanasutra.net/historicalbackground2.htm>

Honjō, Yoshifumi 本庄良文

- 2014 *Kusharonchū Upāyikā no Kenkyū: Yakuchūhen 俱舍論註ウパーイカーの研究: 訳註篇 [A Study of the Abhidharmakośopāyikā nāma Ṭikā: Annotated Translation]*, 2 vols. Tokyo: Daizō Shuppan 大蔵出版.

Horiuchi, Toshiro 堀内俊郎

- 2009 *Seshin no Daijō Busshetsuron — Shakkiron Daiyonshō wo chūshinni 世親の大乗仏説論 — 『釈軌論』 第四章を中心に —*,

Tokyo: Sankibō Busshorin 山喜房佛書林.

IBInsc = Keishō Tsukamoto (塚本啓祥), *Indo Bukkyō Himei no Kenkyū*  
インド仏教碑銘の研究 [A Comprehensive Study of the Indian  
Buddhist Inscriptions], part I, Text, Notes and Japanese Translation;  
part II, Indices, Maps and Illustrations; part III, Inscriptions in  
Northern Areas, Pakistan, Kyoto 1996~2003: Heirakuji Shoten 平  
楽寺書店.

IBK = *Indogaku Bukkyōgaku Kenkyū*, 印度學佛教學研究 [Journal of  
Indian and Buddhist Studies], Tokyo.

Ichijima, Shoshin 一島正真

1990 “Shūshūsidai syoinno Kyōjū ni tsuite.” 「修習次第」所引の  
「經集」について [The Sūtrasamuccaya as quoted in the  
Bhāvanākrama] *Taishō Daigaku Kenkyū Kiyō: Bukkyō Gakubu,*  
*Bungakubu* 大正大學研究紀要. 佛教學部・文學部 75: 260-286.

2000 “The Lotus Sūtra in the Sūtra-samuccaya.” *Taishō Daigaku*  
*Kenkyū Kiyō: Ningen Gakubu, Bungakubu* 大正大學研究紀要.  
人間学部・文学部 85: 300-290.

Ishida, Chikō 石田智宏

1993 “Bodhicaryāvatāra ni okeru Haradaimokusha to Sangehō.”  
Bodhicaryāvatāraにおける波羅提木叉と懺悔法. *Bukkyō Shigaku*  
*Kenkyū* 仏教史学研究 36.2: 1-27.

Iwai, Shogo 岩井昌悟

2014 “Butsudakan, Bosatsukan no Juyō to Henyō — Sekai  
ichibutsu, butsu no ikotsu, bosatsu ni chūmoku shite — 仏陀  
觀・菩薩觀の受容と変容——世界一仏・仏の遺骨・菩薩に着目し  
て——, in *Higashi Ajia ni okeru Bukkyō no Juyō to Henyō* —

*Chi no Kaishaku wo megutte* 東アジアにおける仏教の受容と変容 — 智の解釈をめぐって —, ed. Shōgo Watanabe 渡辺章悟, Tōyō Daigaku Toyōgaku Kenkyūjo Project, 2011-2013 Kenkyū Hōkokusho, 東洋大学東洋学研究所 研究所プロジェクト 平成23(2011)~平成25(2013)年度 研究報告書, Tōyō Daigaku Toyōgaku Kenkyūjo 東洋大学東洋学研究所 [The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Tōyō University], Tokyo 2014, 31-42.

JĀA = *Jñānālokālaṅkāra*, in: Bonzōkan Taishō Chikōmyōshōgonkyō 梵藏漢対照『智光明莊嚴經』: *Jñānālokālaṅkāra*: Transliterated Sanskrit Text Collated with Tibetan and Chinese Translations, ed. Study Group on Buddhist Sanskrit Literature, The Institute for Comprehensive Studies of Buddhism, Taisho University, Tokyo 2004.

Jaini, Padmanabh S.

1958 “On the Theory of Two Vasubandhus.”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21, no. 1/3: 48-53.

2001 *Collected Papers on Buddhist Studies*, ed. Padmanabh S. Jaini, Delhi: Motilal Banarsidass Publishers.

Jayawickrama, N.A.

1962 *The Inception of Discipline and the Vinaya Nidāna: Being a Translation and Edition of the Bāhiraṇidāna of Buddhaghosa's Samantapāsādikā*, the Vinaya Commentary, London: published for the Pali Text Society by Luzac (Sacred Books of the Buddhists, v. 21); reprint: London 1986: The Pali Text Society.

de Jong, Jan Willem

1998 “Recent Japanese Studies on the Lalitavistara.” *Indologica Taurinensia* 23/24 (1997-98): 247-255.

Kajiyama, Yūichi 梶山雄一

1976 *Hannyakūō — Kū no Sekai* 般若經: 空の世界 [The Prajñāpāramitā — the World of Emptiness], Tokyo, 1976: Chūō-Kōronsha (Chūkō Shinsho 中公新書 422).

Karashima, Seishi 辛嶋静志

1992 *The Textual Study of the Chinese Versions of the Saddharmapuṇḍarīkasūtra — in the light of the Sanskrit and Tibetan Versions*, Tokyo: Sankibō Busshorin (Bibliotheca Indologica et Buddhologica 3).

1994 *Jōagonkyō no Gengo no Kenkyū — Onshago Bunseki o Chūshin tosite* (「長阿含經」の原語の研究——音写語分析を中心として) [A Study of the Underlying Language of the Chinese Dīrghāgama—Focusing on an Analysis of the Transliterations], Tokyo 1994.

2001a “Who Composed the Lotus Sutra? — Antagonism between wilderness and village monks.” *Annua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Advanced Buddhology at Soka University* vol. IV (2001): 143-179.

2001b “Some Features of the Language of the Saddharmapuṇḍarīkasūtra.” *Indo-Iranian Journal* 44 (2001): 207-230.

2012 *Die Abhisamācārikā Dharmāḥ: Verhaltensregeln für buddhistische Mönche der Mahāsāṃghika-Lokottaravādins*, herausgegeben, mit der chinesischen Parallelversion verglichen, übersetzt und kommentiert, unter Mitwirkung von Oskar von Hinüber,

Tokyo 2012: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Advanced Buddhism, Soka University, (Bibliotheca Philologica et Philosophica Buddhica XIII), 3 vols.

2013 “Was the Aṣṭasāhasrikā Prajñāpāramitā Compiled in Gandhāra in Gāndhāri?” *ARIRIAB* 16(2013): 171-188.

2014 “The Language of the *Abhisamācārikā Dharmāḥ* — The Oldest Buddhist Hybrid Sanskrit Text.” *Annua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Advanced Buddhism at Soka University* vol. XVII (2014): 77-88.

forthcoming “Vehicle (yāna) and Wisdom (jñāna) in the Lotus Sutra — the Origin of the Notion of yāna in Mahāyāna Buddhism.”

Karlgren, Bernhard

1954 “Compendium of Phonetics in Ancient and Archaic Chinese.” *Bulletin of Th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26: 211~367.; repr.: Göteborg 1954: Elanders Boktryckeri Aktiebolag.

Kawano, Satoshi 河野 訓

2006 *Shoki Kan'yaku Butten no Kenkyū: Jikuhōgo o Chūshin to shite* 初期漢訳仏典の研究——竺法護を中心として——, Ise 伊勢: Kōgakkan Daigaku Shuppanbu 皇學館大学出版部.

Kho = Khotanese

Kimura, Kiyotaka 木村清孝

1999 “Da Fangguang Rulai Xingqi Weimizang jing Kaidai.” 『大方廣如來性起微密藏經』解題, in *Nanatsudera Koitsu Kyōten Kenkyū Sōsho* vol. 4, Chūgoku, Nihon Senjutsu Kyōten (Sono 4), Kan'yaku Kyōten 七寺古逸經典研究叢書, 中国・日

本撰述經典 (其之四) · 漢譯經典, ed. Tairyō Makita 牧田諦亮 and Toshinori Ochiai 落合俊典, Tokyo: Daitō Shuppansha 大東出版社, 674-682.

KN = *Saddharmapuṇḍarīka*, ed. Hendrik Kern and Bunyiu Nanjio, St. Petersburg 1908-12: Académie Impériale des Sciences (Bibliotheca Buddhica X); repr.: Tokyo 1977: Meicho-Fukyū-Kai.

KP = *The Kāśyapaparivarta — A Mahāyānasūtra of the Ratnakūṭa Class in the Original Sanskrit, in Tibetan and in Chinese*, ed. A. von Staël-Holstein, Shanghai 1926: Shangwu Yinshuguan 商務印書館.

KP(V-D) = *The Kāśyapaparivarta: Romanized Text and Facsimiles*, ed. Margarita I. Vorobyova-Desyatovskaya in collaboration with Seishi Karashima and Noriyuki Kudo, Tokyo 2002: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Advanced Buddhism, Soka University (Bibliotheca Philologica et Philosophica Buddhica V).

Krsh 1998 = Seishi Karashima. 1998. *A Glossary of Dharmarakṣa's Translation of the Lotus Sutra* 正法華經詞典, Tokyo: The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Advanced Buddhism at Soka University (Bibliotheca Philologica et Philosophica Buddhica I). (available at: <<http://buddhistinformatics.ddbc.edu.tw/glossaries/download.php>> or <[http://iriab.soka.ac.jp/orc/Publications/BPPB/index\\_BPPB.html](http://iriab.soka.ac.jp/orc/Publications/BPPB/index_BPPB.html)>).

Krsh 2010 = Seishi Karashima. 2010. *A Glossary of Lokakṣema's Translation of the Aṣṭasāhasrikā Prajñāpāramitā* 道行般若經詞典, Tokyo: The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Advanced Buddhism at Soka University (Bibliotheca Philologica et Philosophica Buddhica XI). (available at: <<http://buddhistinformatics>.

ddbc.edu.tw/glossaries/download.php> or <[http://iriab.soka.ac.jp/orc/Publications/BPPB/index\\_BPPB.html](http://iriab.soka.ac.jp/orc/Publications/BPPB/index_BPPB.html)>).

Krsh 2011 = Seishi Karashima. 2011. *A Critical Edition of Lokakṣema's Translation of the Aṣṭasāhasrikā Prajñāpāramitā* 道行般若經校注, Tokyo1: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Advanced Buddhology, Soka University (Bibliotheca Philologica et Philosophica Buddhica XII).

Kuno, Hōryū 久野芳隆

1930 “Bosatsu Jūji Shisō no Kigen, Kaiten, oyobi Naiyō (tokuni Daiji no Jūji wo chūsin toshite)” 菩薩十地思想の起源、開展、及び内容 (特に「大事」の十地を中心として) [Conception of the Ten Stages of a Bodhisattva, its Origin, Development and Substance], in *Wogihara Hakushi Kanreki Kinen Shukuga Ronbunshū* 荻原博士還曆記念祝賀論文集 [Wogihara Commemoration Volume], Tokyo, Taishō University 1930; reprint: Tokyo 1972: Sankibō Busshorin, 63-158.

Lāv = *Lānkāvatārasūtra* (梵文入楞伽經), ed. Bunyiu Nanjio, Kyoto 1923: Otani University (Bibliotheca Otaniensis, vol. 1), reprint: Kyoto 1956: Otani University.

Li, Fang-kuei 李方桂

1971 “Shangguyin Yanjiu” 上古音研究 (Studies on Archaic Chinese).” *Qinghua Xuebao* 清華學報 9: 1~60.

1974~5 “Studies on Archaic Chinese.” *Monumenta Serica* 31: 219~287.

Lk = Zhi Loujiachen 支婁迦讖 or Lokakṣema (fl. ca. 170~190 CE)

Lüders, Heinrich

1954 *Beobachtungen über die Sprache des buddhistischen Urkanons*, aus dem Nachlaß herausgegeben von Ernst Waldschmidt, Berlin (Abhandlungen der Deut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zu Berlin, Klasse für Sprachen, Literatur und Kunst, Jahrgang 1952, Nr.10).

LV = *Lalitavistara: Leben und Lehre des Çākya-Buddha*, ed. S. Lefmann, 2 vols., Halle 1902~1908: Verlag der Buchhandlung des Waisenhauses; repr.: Tokyo 1977: Meicho-Fukyū-Kai.

LV(H) = Kōichi Hokazono. 1994. *Raritavisutara no Kenkyū* [A Study on the Lalitavistara], vol. 1, Tokyo: Daitō Shuppansha.

MĀ = *Madhyama-āgama; Zhōng Ahanjing* 中阿含經 (T. 1, no. 26).

Mabbett, Ian

1998 “The problem of the Historical Nāgārjuna Revisited.”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18.3(1998): 332-346.

Maeda, Egaku 前田惠學

1964 *Genshi Bukkyō Seiten no Seiritsushi Kenkyū* 原始佛教聖典の成立史研究 [A History of the Formation of Original Buddhist Texts], Tokyo: Sankibō Busshorin 山喜房仏書林.

Matsuda, Kazunobu 松田和信

1988 *Indoshō Toshokan shozō Chūōajia shutsudo Daijō Nehangyō Bonbundankanshū —Sutain, Herunre Korekusyon—* インド省図書館所蔵中央アジア出土大乘涅槃經梵文斷簡集—ストーン・ヘルンレ・コレクション— (Sanskrit Fragments of the Mahāyāna Mahāparinirvāṇasūtra: A Study of the Central Asian Documents in the Stein/Hoernle Collection of the

India Office Library, London), Tokyo: Tōyō Bunko, (Studia  
Tibetica, No.14).

MAv = *Madhyamakāvatāra par Candrakīrti: Traduction tibétaine, par  
Louis de la Vallée Poussin, St.-Petersburg, 1907-12 (Bibliotheca  
Buddhica IX).*

MAvBh = *Madhyamakāvatārabhāṣya* see MAv

MAv(tr.J) = Uryūzu Ryūshin 瓜生津隆真 and Nakazawa Mitsuru 中沢  
中, *Zen'yaku Chandorakīrti Nyūchūron* 全訳チャンドラキールティ  
入中論 [A Japanese Translation of the *Madhyamakāvatāra*],  
Urayasu 浦安: Kishin Shobō 起心書房.

MC = Middle Chinese reconstruction. In this paper, the Middle  
Chinese forms, reconstructed by Karlgren 1954 and revised by F.  
K. Li 1971. 4-7; 1974-5, 224-227) are used. The following further  
notational changes, made by Coblin 1983, 41, are also adopted  
here. (1).- will be written as ?-; (2) Ĩ will be written as e.

Mitomo, Ken'yō 三友健容

2007 *Abhidharmadīpa no Kenkyū* アビタルマディーパの研究 [A Study  
on the *Abhidharmadīpa*], Kyoto: Heirakuji Shoten 平楽寺書店.

Mitrikeski, Drasko

2009 “Nāgārjuna and the Tathāgatagarbha: A Closer Look at  
Some Peculiar Features in the *Nirupamyastava*.” *Journal of  
Religious History* 33.2: 149-164.

MN = *Majjhima-Nikāya*, ed. V. Trenckner, R. Chalmers, 3 vols.,  
London 1888-1899 (PTS), vol. 4 (Indexes by C. A. F. Rhys Davids),  
London 1925 (PTS).

Mochizuki, Kaie 望月海慧

2013 “Śāntideva to Dīpaṃkaraśrījñāna” シャーンティデーヴァと  
 ディーパカラシュリージュニャーナ, in *Hokke Bukkyō to  
 Kankei Syobunka no Kenkyū: Itō Zuiei Hakase Koki Kinen  
 Ronbunshū* 法華仏教と関係諸文化の研究: 伊藤瑞叡博士古稀  
 記念論文集, Tokyo: Sankibō Busshorin 山喜房佛書林, 723-  
 735.

Mppś = Étienne Lamotte. 1944~1980. *Le traité de la grande vertu de  
 sagesse de Nāgārjuna (Mahāprajñāpāramitāsāstra)*, t. 1~5, Louvain:  
 Bureaux du Muséon, Université de Louvain, Institut orientaliste  
 (Bibliothèque du Muséon 18; Publications de l’Institut orientaliste  
 de Louvain 2, 12, 24~26).

Mvu = *Le Mahāvastu*, ed. Émile Senart, 3 vols., Paris 1882~1897:  
 Imprimerie nationale; repr.: Tokyo 1977: Meicho-Fukyū-Kai.

Mvy = Hon’yaku Myōgi Daishū 翻譯名義大集 (Mahāvvyutpatti), ed.  
 Ryōzaburō Sakaki, 2 vols., Kyoto 1926; repr.: Tokyo 1962: Suzuki  
 Gakujutsu Zaidan 鈴木学術財団.

MW = Monier Monier-Williams, *A Sanskrit-English Dictionary*, Oxford  
 1899: The Clarendon Press.

Nasim Khan, M.

2008 *Kharoṣṭhī Manuscripts from Gandhāra*, published by Dr. M.  
 Nasim Khan, Department of Archaeology, University of  
 Peshawar.

Nishimura, Minori 西村実則

2006 “Daishubu to Hannyakyō no setten — Shinshutsu Hassenju  
 Hannyakyō danpen wo tegakarini.” 大衆部と『般若経』の接点——  
 新出『八千頌般若経』断片を手がかりに. *Sankōbunka Kenkyūjo*

*Nenpō* 三康文化研究所年報 37: 137-150.

Norman, Kenneth Roy

1978 “The role of Pāli in early Sinhalese Buddhism,” in Heinz Bechert (ed.), *Buddhism in Ceylon and studies on Religious Syncretism in Buddhist Countrie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8-47.

1983 *Pāli Literature, including the Canonical Literature in Prakrit and Sanskrit of all the Hīnayāna schools of Buddhism*, Wiesbaden: O. Harrassowitz (A History of Indian Literature 7, Buddhist and Jaina Literature, fasc. 2).

Norman CP = *Collected Papers*, K.R. Norman, Oxford 1990~; I (1990), II (1991), III (1992), IV (1993), V (1994), VI (1996), VII (2001), VIII (2007): PTS.

O = the so-called Kashgar manuscript of the *Saddharmapuṇḍarīkasūtra*, actually discovered in Khādaliq but purchased in Kashgar. Colour facsimile edition: *Sanskrit Lotus Sutra Manuscripts from the Institute of Oriental Manuscripts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SI P/5, etc.): Facsimile Edition, published by The Institute of Oriental Manuscripts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the Soka Gakkai, and the Institute of Oriental Philosophy, Tokyo 2013: *The Soka Gakkai (Lotus Sutra Manuscript Series 13)*; transliteration: Toda 1983, 3~225.

Pagel, Ulrich

1995 *The Bodhisattvapiṭaka: Its Doctrines, Practices and their Position in Mahāyāna Literature*, Tring: The Insitute of Buddhist Studies (Buddhica Britannica V).

Pāsādika, Bhikkhu

1989 *Nāgārjuna's Sūtrasamuccaya: A Critical Edition of the mDo kun las btus pa*, København, Akademisk Forlag.

Prasp = *Mūlamadhyamakakārikās (Mādhyamikasūtra) de Nāgārjuna avec la Prasannapadā Commentaire de Candrakīrti*, ed. Louis de la Vallée Poussin, St.-Petersburg, 1903-10 (Bibliotheca Buddhica IV).

PTS = The Pali Text Society

PTSD = Thomas William Rhys Davids & William Stede, eds., *The Pali Text Society's Pali-English Dictionary*, London, 1921~25; reprint 1959, 1979.

Sander, Lore

2000 “Die ‘Schøyen Collection’ und einige Bemerkungen zu der ältesten Aṣṭasāhasrikā-Handschrift.” *Wiener Zeitschrift für die Kunde Südasiens* 44 (2000): 87-100.

Schmithausen, Lambert

2014 *The Genesis of Yogācāra-Vijñānavāda: Responses and Reflections*, Tokyo: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Buddhist Studies (Kasuga Lectures Series I).

Schuessler, Axel

2009 *Minimal Old Chinese and Later Han Chinese: A Companion to Grammata Serica Recens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ABC Chinese Dictionary Series).

Shimoda, Masahiro 下田正弘

1997 *Nehangyō no Kenkyū — Daijō Kyōten no Kenkyūhōhō Shiron* 涅槃經の研究——大乘經典の研究 方法試論, Tokyo: Shunjūsha

春秋社.

Shizutani, Masao 静谷正雄

1974 *Shoki Daijōbukkyō no Seiritsukatei* 初期大乘仏教の成立過程,  
Kyoto Hyakkaen 百華苑.

Śikṣ = *Çikṣāsamuccaya: A Compendium of Buddhistic Teaching, Compiled by Çāntideva*, edited by Cecil Bendall, St. Petersburg 1902: Académie Impériale des Sciences; Reprint Tokyo 1977: Meicho-Fukyū-kai (Bibliotheca Buddhica 1).

SIP = Central Asian fragments in the Petrovsky collection of The Institute of Oriental Manuscripts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with the siglum Ser India Petrovskij.

Skilling, Peter

2013 “Vaidalya, Mahāyāna, and Bodhisatva in India: An Essay Towards Historical Understanding”, in *The Bodhisattva Ideal: Essays on the Emergence of the Mahayana*, ed. Bhikkhu Nyanatusita himi, Kandy: the Buddhist Publication Society, 69-162.

2013a “The Samādhirāja-Sūtra and its Mahāsāṃghika Connections”, in *Nepalica-Tibetica. Festgabe for Christoph Cüppers*, ed. Franz Karl Ehrhard et al., Andiast 2013: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ibetan and Buddhist Studies (Beiträge zur Zentralasienforschung 28), vol. 2, 227-236.

2013b “Prakrit Prajñāpāramitās: Northwest, South, and Center: Gleanings from Avalokitavratā and Haribhadra”, in *Evoṣuyadi: Essays in Honor of Richard Salomon's 65th Birthday*, ed. Carol Altman Bromberg, Timothy J. Lenz, and Jason

Neelis, *Bulletin of the Asia Institute* 23 (2013): 199–208.

Sn = *Suttanipāta*, ed. D. Andersen, H. Smith, London 1913: PTS.

Sp = *Samantapāsādikā*, Buddhaghosa's Commentary on the *Vinaya Piṭaka*, ed. J. Takakusu and M. Nagai, 7 vols., London 1924~1947: PTS, 1966~1982 (Vol. 8: Indexes to vols. 1~7, compiled by Hermann Kopp, London 1977: PTS).

Śsv(tr.G) = Felix Erb, *Śūnyatāsaptatiṣṭhi: Candrakīrtis Kommentar zu den "Siebzig Versen über die Leerheit" des Nāgārjuna (Kārikās 1-14): Einleitung, Übersetzung, textkritische Ausgabe des Tibetischen und Indizes*, Stuttgart 1997: Franz Steiner Verlag (Tibetan and Indo-Tibetan Studies 6).

T = 『大正新脩大藏經』高楠順次郎・渡邊海旭都監, 100冊, 東京 1924-1934年: 大正一切經刊行會.

Takahara Shin'ichi 高原信一

1969 "Mahāvastu ni mirareru Fukutokuron" Mahāvastuに見られる福德論, in *Fukaoka Daigaku 35 Kinen Ronbunshū, Jinbunhen* 福岡大学35周年記念論文集人文編, 117-41.

Tib(D) = Derge (sDe dge) Canon; facsimile reproductions:

- (1) *Bstan 'gyur sde dge'i par ma: Commentaries on the Buddha's Word by Indian Masters* (CD-Rom), New York: The Tibetan Buddhist Resource Center (TBRC).
- (2) *The Tibetan Tripiṭaka*: Taipei Edition, ed. A. W. Barber, Taipei 1991: SMC Publishing.
- (3) *The Derge Edition of the Tibetan Tripiṭaka: Kanjur and Tanjur* (デルゲ版西蔵大藏經: 仏説部: 論疏部), CD-Rom edition, 53 discs, ed. Kōyasan University Library, Osaka 1999: Kobayashi

Shashin Kōgyō (小林写真工業).

Tib(Pk) = *The Tibetan Tripitaka: Peking Edition* 影印北京版西藏大藏經, ed. Daisetz T. Suzuki, 168 vols., repr. under the Supervision of Otani University, Kyoto, Tokyo 1955~1961: Tibetan Tripitaka Research Institute.

Toda, Hirofumi

1974 「西域出土梵文法華經研究覚書之(五)」, 『徳島大学教養部倫理学科紀要』9(1974): 21~74.

1983 *Saddharmapuṇḍarīkasūtra, Central Asian Manuscripts, Romanized Text, Tokushima* <sup>1</sup>1981, <sup>2</sup>1983: Kyoiku Shuppan Center.

Tsukamoto, Keishō 塚本啓祥

1980 *Kaitei zōho: Shoki Bukkyō Kyōdanshi no Kenkyū: Buha no Keisei ni kansuru Bunkashiteki Kōsatsu* 改訂増補・初期佛教教團史の研究 — 部派の形成に関する文化史的考察 —, Tokyo: Sankibō Busshorin.

Tucci, Giuseppe

1932 “Two Hymns of the Catuḥ-stava of Nāgārjuna.”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No. 2: 309-325.

Ui, Hakuju 宇井伯壽

1965 *Indo Tetsugaku Kenkyū* 印度哲學研究, vol. 2, Tokyo: Iwanami Shoten 岩波書店.

Walser, Joseph

2005 *Nāgārjuna in Context: Mahāyāna Buddhism and Early Indian Cultur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Warder, Anthony Kennedy

1973 “Is Nāgārjuna A Mahāyānist?” in *The Problem of Two Truths in Buddhism and Vedānta*, ed. Mervyn Sprung, Dordrecht: Reidel, 78-88.

Watanabe, Shōgo 渡辺章悟

1995 *Daihannya to Rishubun no subete* 大般若と理趣分のすべて, Tokyo: Keisuishia /Hokushindō

2009 *Kongō Hannyakyō no Kenkyū* 金剛般若經の研究 [A Study of the Vajracchedikā Prajñāparamitā Sūtra], Tokyo: Sankibō Busshorin.

Wille, Klaus

1998 “Weitere kleine Saddharmapūṇḍarīkasūtra-Fragmente aus der Sammlung Hoernle (London)” in *Sūryacandrāya, Essays in Honour of Akira Yuyama on the Occasion of His 65th Birthday*, ed. Paul Harrison and Gregory Schopen, Swisttal-Odendorf (Indica et Tibetica Bd. 35), 241-256.

2000 *Fragments of a Manuscript of the Saddharmapūṇḍarīkasūtra from Khādaliq*, Tokyo: Soka Gakkai (Lotus Sutra Manuscript Series 3).

Wogihara, Unrai 荻原雲来

1938 *Wogihara Unrai Bunshū* 荻原雲來文集 [Collected Papers of Wogihara Unrai], ed. Wogihara Hakase Kinenkai (荻原博士記念會), Tokyo 1938: Wogihara Hakase Kinenkai; reprint: Tokyo 1972: Sankibō Busshorin 山喜房仏書林.

Yonezawa, Yoshiyasu 米澤嘉康

2012 “Daijōbutten no koshō wo megutte — sūtra no yōrei wo

chūsin ni.” 大乘仏典の呼称をめぐって——sūtraの用例を中心に  
— [On designation of Mahāyāna Scriptures: Examples of  
the usage of sūtra.] *Nihon Bukkyō Gakkai Nenpō* 77: 93-107.

YŚV(tr.F) = *Yuktiṣaṣṭikāvṛtti: Commentaire à la soixantaine sur le  
raisonnement, ou, Du vrai enseignement de la causalité par le Maître  
indien Candrakīrti*, Cristina Anna Scherrer-Schaub, Bruxelles  
1991: Institut belge des hautes études chinoises (Mélanges chinois  
et bouddhiques 25).

Zimmermann, Michael

2002 *A Buddha Within: The Tathāgatarbhasūtra*, Tokyo: The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Advanced Buddhology,  
Soka University (Bibliotheca Philologica et Philosophica  
Buddhica VI).

## Abstract

## Who Composed the Mahāyāna Scriptures?: The Mahāsāṃghikas and *Vaitulya* Scriptures

Seishi KARASHIMA

*Professor / Director, IRLAB*

In this paper, I demonstrated that the earlier composers of the so-called Mahāyāna sūtras had named their texts *vevulla* / *vaitulya* / *vaipulya* (cf. Pāli *vedalla*), and only later were these titles changed to *mahāyānasūtra*. By investigating the earlier Chinese translations as well as the Chinese Buddhist catalogues, I also demonstrated the transition from *vevulla* (2<sup>nd</sup> century C.E.) to *vaitulya* (3<sup>rd</sup> century ~616 C.E.), and then to *vaipulya* (5<sup>th</sup> century onwards) and finally to *mahāyānasūtra* (5<sup>th</sup> century onwards).

I assume that the original form of these variants could have been *\*vedulla*, a Middle Indic form corresponding to *vaitulya* (> *vetulla* > *\*vedulla*), which might mean ‘not’ (*vi*) ‘of the same kind’, i.e. ‘unusual, irregular’. This name *\*vedulla* (Pā. *vedalla*) was used to

designate ‘unusual’ scriptures consisting of repeated questions and answers between an inferior and a superior person, such as between Indra and the Buddha or between disciples. Probably, those who had composed the new scriptures, thought that they were composing unique texts, whose contents and forms were not found in orthodox scriptures, named these texts as \**vevulla*, *vaitulya*, meaning as ‘incomparable, peerless’.

The 『大方等大集經』(\**Mahāvaitulya-Mahāsannipāta*), which was compiled in 586 C.E, is apparently a collection of the *vaitulya-cum-mahāyāna*-scriptures. In this collection, there is passages which describe the various Buddhist schools, among which the description concerning the *Mahāsāṃghikas* is expressed in a positive way, while other schools are described negatively. We may assume that the composer of this *vaitulya*-scripture belonged to the school of the *Mahāsāṃghikas*.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Mahāsāṃghikas* and the *Aṣṭasāhasrikā prajñāpāramitā*, *Saddharmapuṇḍarīkasūtra*, *Samādhirājasūtra*, *Mahāparinirvāṇa mahāsūtra* and *Daśabhūmikasūtra* have been already pointed out.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Mahāsāṃghikas* and *Mahāyāna* in Pāṭaliputra is also recorded. Also, Nāgārjuna, Candrakīrti, Śāntideva and Dīpaṃkaraśrījñāna, who quoted Mahāyāna scriptures in their texts, are assumed to have been monks of the *Mahāsāṃghikas*. Vasubandhu, who was a monk of the *Sarvāstivāda* school and wrote the *Abhidharmakośa*, a compendium of its doctrines, but later also wrote commentaries on some Mahāyāna scriptures, was criticised as ‘a dropout from the *Sarvāstivāda* school’ in the *Abhidharmadīpa* of the

same school. I also pointed out none of *Mahāyāna* scriptures are referred to in the whole Abhidharma texts, which were composed by the Indian *Sarvāstivādins*. Thus, the *Sarvāstivādins* were originally antagonistic to *Mahāyāna* Buddhism.

In conclusion, I assume that members of the *Mahāsāṃghikas* composed new scriptures, often consisting of questions and answers, thus condemning the conservative thoughts on Buddhist doctrines, and called these newly-composed texts as *vedulla / vaitulya*, in the meaning of their being ‘irregular’ as Buddha’s scripture but ‘incomparable, peerless’. Later, they came to be called in a more positive way as *vaipulya* ‘full development, abundance, plenty, fullness’. Much later still, they came to be called *mahāyāna-sūtra* as well. Those who composed, copied, read, recited, proclaimed these ‘new scriptures’, did not call themselves ‘mahāyanists’ at the beginning. They were after all members of the *Mahāsāṃghikas* and therefore, it is quite natural that the name *mahāyāna* does not occur in early Indian inscriptions. Much later on, when the *Mahāyāna* scriptures and doctrine became much more popular, members of other schools acknowledged them and absorbed them as well.

**Key Words:** *vaitulya* scriptures, *mahāyāna-sūtra*, *Mahāsāṃghikas*, *vaipulya*, *mahāvaipulya*, *vedalla*, *vaitulika*

2014년 11월 3일 투고  
2014년 11월 30일 심사완료  
2014년 12월 10일 게재확정